

文學碩士 學位論文

청도 대적사 극락전 불교미술 연구

慶州大學校 一般大學院

文 化 財 學 科

차 정 훈

2018年 8月

청도 대적사 극락전 불교미술 연구

指導教授 임영애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8年 8月

慶州大學校 一般大學院

文 化 財 學 科

차 정 훈

차 정 훈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慶州大學校 一般大學院

2018年 8月

목 차

I. 머리말	1
II. 대적사의 연혁과 가람배치	5
III. 대적사 극락전 불교미술	13
1. 극락전과 기단부조	17
2. 불상과 승호파	25
3. 단집과 불단	45
IV. 대적사 극락전 불교미술의 의미	52
V. 맺음말	56
참고문헌	59
도판 목록	63
부 록	67
국문초록	79
Abstract	80

표 목 차

[표 1] 「대적사중수기」와 「보광전상량문」 내용	9
[표 2] 청도 대적사 관련 기록	12
[표 3] 『용비어천가』에 등장하는 용에 관련된 구절	18
[표 4] 호남지역과 영남지역의 용 조각비교	24
[표 5] 18~20세기 제작시기를 알 수 있는 반야용선도	24
[표 6] 승호와 불교조각 목록	31
[표 7] 17세기 중반 이후 경상도지역의 불상재질	42

I. 머리말

경상북도 청도군에는 12개의 전통사찰이 있다. 대적사, 대산사, 용천사, 대비사, 불영사, 운문사, 보현사, 적천사, 대운암, 신둔사, 덕사, 죽림사가 그것이다.¹⁾ 청도는 신라시대부터 군사 요충지이면서 낙동강 상류 및 밀양, 경산, 창녕, 고령 등지로 이어지는 교통의 시발점이 되는 중요한 곳이었다.²⁾ 이와 같은 지리적 이점이 신라시대 이후 운문사를 비롯한 여러 사찰이 건립 될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이 되었을 것이다. 이후 이곳 청도는 나라가 바뀌거나 행정체제의 개편에 따라 독립된 행정구역이 되거나 밀양이나 대구에 속한 지역이 되었다.³⁾

대적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 동화사의 말사로서, 청도군 화양읍 송금리에 위치한 동학산에 자리하고 있다. 대적사는 신라 헌강왕 2년(876)에 보조국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하지만, 이를 신뢰할만한 문헌기록은 남아있지 않다.⁴⁾ 그 이후부터 1755년에 대적사가 중수될 때 까지 전하는 기록이 없어 대적사 모습을 추정할 수 없다.

잘 알려진 것처럼 조선은 전쟁으로 인해 많은 건축물이 소실되고 폐허가 되는데, 대적사도 이때 소실되었다가 이후에 새롭게 창건한 것으로 전한다.⁵⁾ 당시 임진왜란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불교는 청허 휴정(1520-1604)과 사명대사 유정(1544-1610) 등 고승을 필두로 하여 승병을 꾸려 왜에 저항하였고,⁶⁾ 전쟁이 끝난 이후 공로를 인정받아 사찰의 위상이 올라간다.⁷⁾ 불교는 높아진 위상을 바탕으로 사찰 재건을 시작하고, 대

1)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사찰현황』, 2016. 12 기준.

2) 오세덕, 「운문사의 유물과 기록을 통해 본 가람의 변화상」, 『운문사의 역사와 문화』, 2016, p. 28.

3) 『高麗史』 卷第57 <志> 11 地理 慶尙道 淸道郡條.

『世祖實錄』 卷第9 世祖 3年 丁丑 庚戌條.

『宣祖實錄』 卷第82 宣祖 29年 丙申 壬子條.

4) 청도군청, 『淸道郡誌』, 구일출판사, 1991, p. 1024.

5) 사찰의 문헌에는 중건이라고 전하지만, 현재 임진왜란 이전에 사찰 흔적은 남아있지 않다. 대적사 이전에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대적사 초창을 성해대사(性海大師)가 지었다고 전하는 1675년으로 보고자 한다.

6) 손성필, 「16·17세기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동향」,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13, pp. 175-214; 김소담, 「朝鮮 後期 江原道 地域 佛像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7, p. 1.

7) 이종수, 「왜란과 호란 이후 불교계의 변동과 추이」, 『한국불교사연구』 8, 2015, pp. 214-215; 申大鉉, 「『山中日記』를 통한 17세기 佛教文化 考察」, 『문화사학』 45, 2016,

적사는 이런 분위기에서 증견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적사는 임진왜란 이후에 건립한 극락전, 삼성각, 산령각, 향각 등의 전각을 비롯하여 여러 석조물이 남아있다.

대적사 극락전은 조선후기 다포양식 건물인데, 기단부에는 다양한 문양이 조각되어 있다. 극락전 기단은 조각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인데, 기단에 다양한 문양이 조각된 건물이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결국 대적사는 중요성을 인정받아 1985년 1월 8일에 보물 제 836호로 지정되어있다.⁸⁾ 오른쪽 계단면석에 있는 용 조각은 세종 때 만든 최초의 한글 서사시인 『용비어천가』를 표현한 「용비어천도」로 불린다. 특히 대적사 극락전 기단 문양은 조각사에 있어서 흥미로운 경우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 막연하게 추측할 뿐 자세한 연구는 진행된 바가 없다. 또한 전각내부에서는 다양한 특징을 확인 할 수 있다. 그 특징은 불단의 비율이 높은 점과 봉안된 삼존불이 같은 시기에 제작한 점, 창건 때부터 같은 자리에 있는 점 등 다양하게 있으며, 이런 특징은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지금까지 대적사 극락전에 대한 연구는 건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전각과 더불어 중요한 요소인 기단문양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⁹⁾

pp. 117-118.

8) 문화재관리국, 제 20차 회의록, 1985.

9) 대적사 극락전에 대한 개별적인 논문은 발표되지 않았고, 다포계 건물의 예시로 종종 등장하기도 한다. 현재까지 연구된 다포계 건물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關野貞, 「한국건축조사보고」, 1905; 藤島亥治郎, 「조선건축사론」, 1929; 정인국, 「한국건축양식론」, 1974; 장경호, 「한국목조건축에 나타난 포에 관한 연구」, 1974; 김동현, 「한국고건축단장 하」, 1977; 장기인, 「한국건축사대계 V 목조」, 1988; 배병선, 「다포계 맞배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93; 양윤식, 「조선중기 다포계 건축의 공포 의장」, 『건축역사연구』(8)3, 1999; 양재영, 「조선시대 다포식건축의 가구 발달과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07; 이우중, 「단층 불전 내주의 결구 및 배열 방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0; 최지혁, 「한국전통 목조 건축 도리배치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1; 양윤식, 「조선중기 다포계 건축의 공포 의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2; 이연노, 「한국전통목조건축의 보에 관한 연구 : 공포와 지붕틀과의 결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02; 김찬영, 「朝鮮後期 多包 佛殿의 比例體系에 關한 研究」, 조선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3; 이정원, 「多包系 寺刹建築의 부재간 相關關係와 比例를 통한 營造體系에 관한 연구 - 18C 以前 정면3칸 측면3칸 팔작지붕 형식 主佛展殿을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3; 정연상, 「조선시대 목조건축의 맞출과 이음방법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06; 양재영, 「조선시대 다포식 건축의 가구 발달과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07; 김영기, 「17, 18세기 주불전의 특성에 관한 연구 :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9; 정수희, 「朝鮮後期 寺刹建築의 栱包議狀 研究: 17, 18세기 다포계 건축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9; 김용철, 「조선 후반

2005년에는 대적사 극락전을 수리한 보고서가 나왔고,¹⁰⁾ 『韓國의 古建築』, 『사찰장식 그 빛나는 상징의 세계』와 같은 단행본과 「朝鮮後期 佛殿莊嚴의 象徵性에 관한 研究」, 「사찰 佛殿 莊嚴의 상징 연구」 등의 연구 논문에서 기단부조를 해석하려는 시도가 있었다.¹¹⁾ 하지만 앞 연구는 주로 극락전이 가진 건축적 특징과 극락전 장엄에 치중하였고, 불상, 불화를 비롯하여 닫집, 수미단에 이르기까지 대적사 불교미술을 전체적으로 살펴본 자세한 연구는 진행되지 못했다. 특히, 『韓國의 古建築』은 대적사 실측자료와 더불어 불화, 불상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이 연구 성과 역시 건축을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대적사 극락전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불교미술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계단 면석이 「용비어천도」가 맞는지 어떤 이유로 제작됐는지 추정해보겠다. 다음으로 내륙에 위치하고 있는 대적사 극락전에서 어떤 이유로 기단에 해양생물이 보이는지 생각해 보겠다. 마지막으로 대적사 불전장엄을 살펴보고 전각 내에 봉안되어 있는 삼존불의 제작자를 추정해보겠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II장에서 대적사와 관련된 기록을 통해 대적사 변화과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대적사와 연관된 기록은 「대적사 중수기(大寂寺重修記)」, 「보광전상량문(普光殿上樑文)」, 「운문사지(雲門寺誌)」, 명문 기와 2점, 극락전에 있는 불화의 화기 등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중수시기를 비롯하여 화주(化主)가 누구였는지 등 당시 사찰의 상황을 살펴보고, 시간이 흐르면서 대적사의 변화를 살펴 볼 것이다.

III장에서는 현재 극락전 모습을 관찰하면서 조선후기 극락전 흔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극락전 현황을 살펴본 이후에는 극락전 기단에 조각된 다양한 문양을 경전에서 찾아볼 것이다. 특히, 「용비어천도」라고 불리는 조각

기 3x2칸과 3x3칸 주불전의 목가구 형식적 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0; 안대환, 「조선시대 사찰 주불전에서 불단위치와 목가구의 상관성과 시대적 변화」,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1; 조경래, 「朝鮮時代 3칸 佛殿建築의 比例體系 研究」, 동방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11; 성대철, 「韓國傳統木造建築의 比例體系에 관한 研究」, 조선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11; 배경남, 「조선시대 측면 2칸형 다포계 불전의 건축특성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6.

10) 문화재청·청도군, 『大寂寺 極樂殿 修理報告書』, 明星企劃印刷社, 2005.

11) 李彦珠, 「朝鮮後期 佛殿莊嚴의 象徵性에 관한 研究」, 『佛敎大學院 論叢』 6, 1999, pp. 537-659; 양상현, 「사찰 佛殿 莊嚴의 상징 연구」, 『역사민속학』 19, 2004, pp. 305-336.

에 대해 분석을 하고, 이 조각을 「용비어천도」가 맞는지 확인을 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런 조각이 대적사에 등장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 볼 것이다.

외부 조각에 대하여 살펴본 이후에는 전각에 봉안된 불상을 관찰하여 어떠한 형식 및 양식 특징을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 그러한 요소를 통해 조각승을 추론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불상 이외에도 전각을 장엄하고 있는 불화, 단집, 수미단 등 다양한 요소를 살펴봄에 장엄물에 대한 현황과 특징을 관찰하고 이러한 요소가 대적사에 나타난 배경을 알아보려고 한다.

IV장에서는 앞에서 언급했던 유물을 종합적으로 고찰해보고 대적사가 조선후기 사찰로써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대적사의 연혁과 가람배치

대적사는 일주문이나 문루와 같이 사찰 입구를 나타내는 건축물은 없고, 자연석으로 된 계단 끝에 있는 문을 통해 경내로 들어갈 수 있다. 정문에 들어서면 좌우로 긴 공간이 있고 정면에 극락전이 배치되어 있다.¹²⁾ 극락전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향각과 동측당이 자리잡고 있고, 서쪽으로는 삼성각, 극락전 뒤편으로 산령각이 위치하고 있다(圖 1).



圖 1. <87 대적사 극락전 배치도>



圖 2. <00년 대적사 극락전 배치>

현재 대적사 모습은 최근까지 불사를 거듭 진행하면서 갖춘 모습으로, 1987년 대적사 배치도와 2000년 대적사 배치도를 비교하면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난다.¹³⁾ 결과적으로 극락전 앞 공간은 동서로 길게 확장하고, 불전을 중심으로 전면 공간이 일체화가 이루어졌다. 1990년대 중반에는 산령각이 극락전 뒤편 서북쪽에 신축되었다. 산령각 기반은 경사지를 이용해

12) 정문은 4칸으로 극락전과 동일축선을 이루고 있으며, 문 좌우로 심벽(心壁)을 쌓았다. 심벽은 벽체 구성방법에 따른 명칭으로 우리나라 건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상하의 인방사이에 중깃을 세운다. 중깃과 함께 가시새, 힘살 등 여러 가지 부재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잘 사용되지 않는다. 벽을 만들 때 사용하는 흙에 따라 灰壁, 砂壁, 灰砂壁 등으로 불리며, 맞벽이라고도 한다. 김왕직,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 동녘, 2007, pp. 213-214.

13) 1987년에는 기단정비와 함께 외각 돌각담공사가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마당경계와 사역 전면과 측면의 담장이 정리 되었다. 1989년에는 향각 개축공사와 더불어 진입로 포장과 정문 앞 계단공사를 하였다. 이때 향각 평면구성이 바뀌면서, 향각의 독립성은 약화되고, 극락전 공간과 통합성이 강화된다. 이러한 구성변화는 1998년 동측 승방을 철거하고 동측당이 신축되면서 더 강해졌다. 국립문화재연구소, 『韓國의 古建築』 24, 2002, pp. 22-23.

높게 조성하고 다른 전각과 거리를 두는 것으로 구역을 형성하였다(圖 2).¹⁴⁾

「대적사중수기」에는 성해대사(性海大師)가 대웅전을 비롯하여 향노전(香爐殿), 범종각을 함께 건립한 것으로 전한다.¹⁵⁾ 향노전은 지금의 향각이며, 범종각이 있었던 자리는 경내에서 찾아 볼 수 없지만, 통상적으로 정문 좌측이나 우측에 설치한다. 대적사 범종각도 통상적인 경우처럼 현재 정문 좌측이나 우측에 설치한 것으로 추측한다.¹⁶⁾ 성해대사가 창건하면서 안치한 불상 세 구는 주전각인 대웅전에 봉안한 것으로 보인다.¹⁷⁾

대적사는 신라 헌강왕 2년(876) 보조국사가 창건하였으며, 고려시대에 보양국사가 중창하였다고 전한다.¹⁸⁾ 하지만 이에 대한 문헌기록은 전하는 것이 없어 확인할 수가 없으며, 남아있는 유물도 없어 신뢰하기 어렵다. 대적사 연혁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힌 문헌 기록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1755년에 제작된 「대적사중수기」이고, 다른 하나는 1756년에 제작된 「보광전상량문」이다.¹⁹⁾ 두 문헌 사료는 1년을 간격으로 제작되었지만, 창건 당시의 전각 명칭이 다르게 나타나 주목된다(圖 3, 圖 4).



圖 3. <대적사중수기>, 나무, 1675년, 26x79, 대적사 극락전



圖 4. <영좌청도군북○학산대적사보광전상량문>, 종이, 1772 추정, 66x69.3, 65.8x69.7, 2매, 주지실

왜 두 문헌사료에서 하나의 건물을 두고 서로 다른 전각 명칭을 사용했는지 알아보기에 앞서 대적사 연혁부터 살펴보겠다. 「대적사중수기」는 창건연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연혁을 알 수 있는 두 가지의 단서가

14) 국립문화재연구소, 위의 책, 2002, p. 23.

15) 「대적사중수기」, ‘…大雄殿 香爐殿 佛像三尊 東別構及泛鐘閣 皆同時所建 其事實 俱在板文 且師之宗派 皆住於此 及今八十餘載…’.

16) 문화재청·청도군, 위의 책, 2005, p. 66.

17) 국립문화재연구소, 위의 책, 2002, p. 21.

18) 청도군청, 위의 책, 1991, p. 1024.

19) 「대적사중수기」는 1755년에 제작된 것으로 중수 내용을 나무판에 음각하였다, 현재는 건물 뒤편 우측 협칸에 위치하고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위의 책, 2002, p. 8.

있다. 첫째는 「대적사중수기」 마지막 부분에 ‘성해대사가 대적사를 재건한 시기는 중수시기로부터 80여년 전 병진(丙辰)년이다’라고 밝히고 있다.²⁰⁾ 둘째는 청저(靑猪)라는 간지를 통해 채징이 대적사 중수를 끝낸 시점은 병진년으로부터 80년 뒤 을해(乙亥)년임을 알 수 있다.²¹⁾ 즉, 사찰 중건을 끝낸 을해년이 기점이 되고, 이로부터 80여년 전이 대적사 초창년도인 것이다. 아쉽게도 「대적사중수기」에는 을해년이 언제인지 밝히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을해년이 언제인지 알기 위해서 석조물을 비롯한 여러 기록에서 단서를 찾아야 한다.

첫 번째 단서는 사찰 입구 오른편에 위치한 승탑에서 찾을 수 있다.²²⁾ 이 승탑에는 명문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 승탑은 건륭17년(乾隆十七年)에 만들었다는 것과 풍암대사(豐巖大師) 순민(順敏)을 기리기 위해 제작한 것을 알 수 있다.²³⁾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승탑 제작이 건륭 17년(1752)이라는 점이다. 즉, 승탑을 통해 사찰 재건을 조선후기로 비정할 수 있다.

두 번째 단서는 기와에 적혀있는 명문이다. 현재 대적사에는 명문 기와 두 점이 전해진다. 두 기와는 극락전 후면 지붕 위에 사용되고 있는 암막새이며, 각각 ‘康熙二十九年庚午一月日’과 ‘乾隆十九年 甲戌三月日造’가 새겨져 있다(圖 5, 圖 6).²⁴⁾ 특히, ‘건륭 19년(1754)’ 기와는 대적사 중창년대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명문 기와로 인해 대적사 중창년대를 1754년 이후 을해년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²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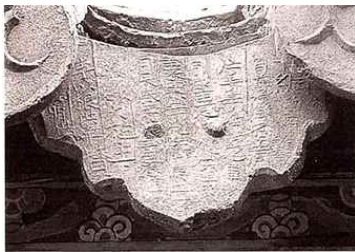


圖 5. <‘康熙二十九年’명 기와>



圖 6. <‘乾隆十九年’명 기와>

20) 「대적사중수기」, ‘…粵在丙辰春 海大師 始就洞鶴山中 創立是寺…’.

21) 「대적사중수기」, ‘…靑猪孟夏之下澣 鄭龍夏書 李得春刻’.

22) 사찰 밖에는 포탄형의 승탑이 한 기 있다. 승탑에 새겨진 명문을 통해 풍암대사의 승탑임을 알 수 있다. 한국전쟁 이전에는 많은 수의 승탑이 있었다고 전해지나 현재는 한 기만 남아있다. 정도군청, 위의 책, 1991, p. 1024.

23) ‘乾隆十七年 豐巖大師 順敏 壬申二月初八月安.’

24) ‘康熙二十九年庚午’는 1690년, ‘乾隆十九年甲戌’은 1754년을 말한다.

두 개의 단서를 통해서 대적사 중창은 조선후기에 이루어졌으며, 중창년대는 1754년 이후라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점을 통해서 1754년 이후에 나오는 올해년은 1755년이며, 성해대사가 대적사를 창건한 병진년은 1755년으로부터 80년 전인 1675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적사중수기」내용을 정리하면, 성해대사가 1675년에 대적사를 창건하였으며, 체징(體澄)은 1675년으로부터 80여년 뒤인 1755년에 대적사 중수를 끝냈다.²⁶⁾ 1755년 재건시에 화주는 체징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한응(漢應), 축담(竺談), 관정(灌頂), 득열(得悅) 등 다양한 승려가 체징을 도와 사찰을 재건했음을 밝히고 있다.²⁷⁾

「보광전상량문」은 「대적사중수기」에 비해 창건연대를 추정하기 쉽다. 「보광전상량문」에서 보이는 연혁에 대한 가장 이른 기록은 ‘原夫此寺也 崇禎 庚申□□…’이다. 경신 뒤의 내용은 글자가 뚜렷하지 않아 알아 볼 수 없다. 하지만 앞의 내용으로 짐작해보면, 숭정 경신(1620년) 때 건물이 처음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²⁸⁾ 전각 건립에 대한 내용은 1620년으로부터 56년 이후인 康熙 乙卯(1675년)에 세월당 성해대사가 보광불전을 건립했다고 밝히고 있다.²⁹⁾ 체징이 다시 대적사를 중수한 시기는 그로부터 80년 뒤인 1754년으로 적고 있으며, 전각 이름은 밝히지 않고 법당이라고만 쓰여있다.

「보광전상량문」에 적힌 내용을 정리하면, 숭정 경신(1620년)을 통해 어떤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1675년에 성해대사가 보광전을 설립하며 사찰을 다시 세웠고, 그로부터 80년 이후인 1754년에 체징이 법당을 중수하였다. 스님이 맡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는 「대적사 중수기」와 차이가 없으며,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1과 같다.³⁰⁾

25) 국립문화재연구소, 위의 책, 2002, p. 9.

26) 국립문화재연구소, 위의 책, 2002, p. 8.

27) 「대적사중수기」, ‘…漢應以前和尚爲都監而董役 體澄以前書記爲化主而募緣 首座克修 極盡誠意而相其事 匠師灌頂 年纔二十七而殫其才 至如義浩師 勝擇 太幹 明淨師 竺談師 智哲師 皆以寺中大德 發願而相助…’.

28) 연호가 崇禎일 때는 庚申이라는 간지가 보이지 않고, 太昌에서 庚申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 文化財廳·淸道郡, 위의 보고서, 2005, p. 64.

29) 「보광전상량문」, ‘…康熙乙卯 有洗月堂性海大師 特建普光佛殿 則迺□相去得五十六年…’.

30) 「보광전상량문」, ‘…緣化秩 前和尚兼都監漢應 別坐竺談 都大木灌頂 得悅 副片手最性 錦學 侃惠 淨惠…化主 體澄…’.

[표 1] 「대적사중수기」와 「보광전상량문」 내용

	대적사중수기	보광전상량문
제작년대	1755년	1756년
건립자	서월당 성해대사	세월당 성해대사
재건연대	1675년	1674년
주전각	대웅전	보광전
부속전각	향로전, 동별구, 종각	없음
불상	세 구 안치	언급하지 않음
중수 시 화주	체징	체징

「대적사중수기」와 「보광전상량문」은 성해대사가 창건한 시기, 동일한 화주 이름, 체징이 중수를 끝낸 시점 등 대부분의 내용이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³¹⁾ 하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성해대사가 건립한 전각명칭은 두 문헌사료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보광전상량문」이 「대적사중수기」보다 먼저 제작됐기 때문에 1년 사이에 전각명칭이 대웅전에서 보광전으로 바뀐 것으로 생각한다.³²⁾

또한 「대적사중수기」에 대웅전과 함께 동별구, 종각이 함께 지어졌다고 밝히고 있어 대적사는 대웅전을 중심으로 재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각에 봉안된 불상 세 구는 대웅전에 안치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대적사에는 2기의 주전각이 들어설 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대웅전과 보광전은 같은 건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³³⁾

「경상좌도대구도호부북팔공산동화사대웅전중창상량문병서」와 「팔공산동화사봉서루상량문」은 「대적사중수기」와 「보광전상량문」에 신빙성을 더해

31) 「대적사중수기」에서 보이는 건립 연대가 1년 늦게 나타나지만, 이것은 중수기가 늦게 만들어졌을 뿐, 건물은 단청을 제외하고 1754년에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대적사중수기」, ‘…復得漢應師及澄師 則見法堂屋宇之腐曉者 曰是吾責 是吾事 闕逢闡茂之歲 與寺僧合謀改修 仍舊貫而益侈其觀 閱年而黝堊丹雘 隨以完畢…’.

32) 문화재청·청도군, 위의 책, 2005, p. 65.

33) 문화재청·청도군, 위의 책, 2005, p. 65.

준다. 동화사기록을 보면, 「대적사중수기」에 등장하는 스님이 나타난다. 1727년에 제작된 「경상좌도대구도호부북팔공산동화사대웅전중창상량문병서」를 보면, 시주연화장인등(施主緣化匠人等)에 관음전(觀音殿) 지철(智哲), 미륵전(彌勒殿) 체징(體澄), 두월료(斗月寮) 축담(竺淡) 등이 나타난다. 1730년에 제작한 「팔공산동화사봉서루상량문」에는 각 전각별로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미륵전 지철, 두월료 축담이 나타난다.

동화사 기록에서 지철, 체징, 축담의 위치는 각방 소속 스님 명단 가운데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지만, 「대적사중수기」에서 지철은 화상, 체징은 화주, 축담은 시임질(時任秩)등 주요 임무를 맡았다. 다시 말하면, 대적사 중수는 동화사 대웅전 중창과 봉서루 상량 이후에 이루어졌고, 동화사 대웅전 중창은 1727년, 봉서루는 1730년에 지어졌으므로 1755년에 대적사를 중수했다는 기록은 신빙성이 높다.

즉, 「대적사중수기」제작년대와 후면에 남아있는 명문 기와를 통해 대적사 극락전은 18세기에 축조한 것으로 보인다.³⁴⁾ 아울러 여러 장엄요소는 1755년에 중수를 진행하면서 추가한 것으로 생각한다.³⁵⁾ 그 이유는 첫째, 건물의 전면공포와 후면공포 모습에 차이를 두었다.³⁶⁾ 이러한 경향은 조선중기 이후에 점차 확산되고 조선후기 다포계 건물의 일반적인 특징이 된다.³⁷⁾ 둘째, 전면공포 살미의 내단과 외단에 연화장식을 하였다.³⁸⁾ 셋째, 전각 내부 천장에서 보이는 다양한 장식적 요소가 있다.³⁹⁾ 이상 세 가지 요소를 통해 1754년에 중수할 때, 1676년 초창기 모습을 바탕으로 재건

34)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위의 책, 2002, pp. 27-32.

35) 「대적사중수기」, 闕逢□茂之歲 與寺僧合謀改修 仍舊貫而益侈其觀 閱年而黜堊丹□ 隨以完畢

36) 공포 유형은 형태에 따라 동일형과 위계형이 있다. 위계형은 정면강조형, 정면연장형, 독립위계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대적사 극락전은 정면강조형으로 제작되었다. 강조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연화, 용두, 봉두 등 상징물을 공포에 추가하여 장엄성을 강조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후면 공포를 간략하게 처리하는 방식이 있다. 대적사 극락전은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사용하였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위의 책, 2002, p. 48; 양윤식, 「朝鮮 中期 多包系 建築의 枱包 意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00, p. 195.

37)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위의 책, 2002, p. 29.

38) 살미는 형태에 따라 교두형, 쇠서형, 조각형, 연봉형, 연화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대적사 극락전은 연화형 살미인데, 연화를 조각과 함께 조각했다. 형태는 교두형, 쇠서형, 조각쇠서형, 연화쇠서형 순으로 변환다. 김준영, 「조선후기 다포계 주불전 살미의 특징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4, p. 39.

39)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위의 책, 2002, p. 31.

한 것으로 보인다.⁴⁰⁾

「보광전상량문」 이후, 더 이상 대적사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17세기에 만들어진 『輿地圖書』나 18세기말에 간행된 『梵宇攷』에도 대적사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후 1832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는 『慶尙道邑誌』 가운데 淸道郡邑誌 불우조에 ‘大寂寺 在郡北二十里’라는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대적사가 19세기 전반에는 사세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정도만 알 수 있다.⁴¹⁾

일제강점기에 들어와서는 1912년에 만들어진 <明治四十年一日次大寂寺調査件>을 통해 대적사의 사세가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⁴²⁾ 일제강점기 중반에는 중수 불사가 있었는데, 1939년 한 해에서만 지장보살도와 칠성도를 조성하며 극락전의 보수도 같이 진행되었다.⁴³⁾ 지장보살도와 칠성도에서는 ‘世尊應化二千九百六十六年己卯十一月二十八日奉安于動鶴山大寂寺’라고 적힌 화기가 있다. 불화를 조성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불화 두 점을 대적사에 봉안했음을

알 수 있다. ‘극락전’이라는 명칭은 1939년 「大寂寺極樂殿重修奇附芳啣記」에서 처음으로 나타난다(圖 7).



圖 7. <대적사극락전중수기부방함기>, 1939년, 부방함기에는 ‘현세에 부귀영화를 누

리고 후세에 상품의 연화대좌에 가기를 원한다’고 적혀있다. 즉, 발원자는 극락전을 중수할 때 보시를 통하여 극락정토에 가기를 바라는 것을 알 수 있다.⁴⁴⁾

대적사의 근대 기록 가운데 가장 이른 것은 1962년 「改金佛事寄附芳名記」이며, 「개금불사기부방명기」이외에 1974년 「大寂寺極樂殿重修施主芳名塔」, 1987년 『문화재수리보고서』, 1997년도 「국가지정문화재수리보고서

40)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위의 책, 2002, p. 32.

41) 국립문화재연구소, 위의 책, 2002, p. 10.

42) 적천사는 次邑面 柳等, 新川, 陳羅 등 3곳에 35두락, 次北面 下大谷, 下乾, 大西 등 34두락, 경산 남면 하도동에 12두락 등 80두락을 가지고 있었다. 두 번째로 많은 두락은 소유하고 있는 절은 신문사로 43개의 두락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예를 통해 조선말기에는 대적사의 사세가 컸음을 추측할 수 있다. 아세아문화사, 『雲門寺誌』, 1977, pp. 119-156

43) 1929년에 작성된 지장탱화와 칠성탱화의 화기, 1939년에 작성된 <大寂寺極樂殿重修奇附芳啣記>등을 통해 대적사의 연혁을 알 수 있다.

44) 「大寂寺極樂殿重修奇附芳啣記」, ‘…今世富貴榮華後世往生上品蓮臺之願’

(하권)」, 1990년 「大寂寺香閣改築工事施主功德碑」, 「도로계단공사시주공덕비」 등 여러 기록이 있다. 위의 자료들을 통해 대적사는 근대에 들어 많은 보수 및 개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산령각 및 삼성각은 신축을 하였다.

[표 2] 청도 대적사 관련 기록

번호	문서이름	년도
1	대적사중수기	1755년
2	보광전상량문	1772년
3	慶尙道邑誌	1832년
4	明治四十午年一日次大寂寺調査件	1912년
5	大寂寺極樂殿重修奇附芳啣記	1939년
6	改金佛事寄附芳名記	1962년
7	大寂寺極樂殿重修施主芳名塔	1974년

Ⅲ. 대적사 극락전 불교미술



圖 8. <대적사 극락전 전경>

보물 제 836호 대적사 극락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다포계 맞배지붕이다(圖 8).⁴⁵⁾ 건물 가구방식은 고주가 없고, 두 개의 대들보 위에 종량이 올라가는 무고주(無高柱) 이중량(二宗樑)방식이다. 또한 건물 측면에서 확인 되는 다섯 개의 도리를 통해 오랑가(五梁架)임을 알 수 있다, 건물의 하중을 받치기 위하여 측면 대들

보 하단에 기둥을 사용하였다.⁴⁶⁾

대적사 극락전 기단은 지형을 따라 만들어졌다. 정면기단은 화강암을 사용하여 만든 가구식 기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건물 왼쪽측면의 중간까지 가구식 기단이 나타난다. 그 이후부터는 자연석 기단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모습은 반대쪽에도 나타난다. 한 가지 다른 점은 오른쪽측면에 두벌대의 기단석이 배치되었다는 점인데, 이는 오른쪽 면이 왼쪽 면 보다 지형이 낮기 때문이다. 건물 뒤쪽은 자연석 기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양 측면 기단과 연결되어 설치되었다.⁴⁷⁾

극락전 맨 아래층에는 땃돌이 두 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위로 지대석, 면석, 갑석을 순서대로 올렸다. 대적사 기단면석에는 다른 사찰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조각을 확인할 수 있다. 기단면석에 종선과 횡선을 양각하여 ‘十’자를 새겨놓았다. 계단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거북이 두 마리, 게 한 마리와 연꽃이 조각되어있다. 연꽃은 세 겹으로 되어있고 연꽃의 중앙에는 거북이가 올라가있다. 기단의 왼쪽 부분에도 다양한 문양이 새겨져 있으나, 어떤 문양인지 알 수 없다.

기단 조성시기는 1675년으로 건물이 초창될 때 같이 조성된 것으로 보

45) 17세기에 많은 수의 3칸x2칸 건물을 지었고, 지역별로는 경상북도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배경남, 위의 논문, 2016, p. 5

46) 오랑가의 구성은 앞뒤기둥에 대들보를 건너지른 다음 대들보 위에 종보를 걸고 종보 중앙에는 대공을 세워 대공과 종보 및 대들보 양쪽에 도리를 건다. 처마도리와 중도리에는 장연을 걸고 중도리와 중도리에는 단연을 건다. 김왕직, 위의 책, 2007, p. 142; 국립문화재연구소, 위의 책, 2002, p. 62.

47) 文化財廳·淸道郡, 위의 보고서, 2005, p. 130.

인다. 그 이유는 계단 소맷돌에 조각된 용이 17세기 등장하는 용과 유사하기 때문인데 특히, 백자에서 보이는 용과 유사한 점을 찾을 수 있다.⁴⁸⁾ 17세기 자기에 그려진 용은 이전과 이후시기에 비해 선이 굵고 세부표현이 간략하게 표현된다.⁴⁹⁾ 대적사 기단에 있는 용도 이 시기에 보이는 용과 유사하다. 따라서 계단을 포함하여 건물 기단은 건물이 초창했을 때 같이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계단은 기단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장대석을 쌓아올려 만들었다.⁵⁰⁾ 계단 양 측면 면석에는 다양한 문양을 활용하여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건물의 초석은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했으며, 뒷면 오른쪽 귀초석에는 못자국이 남아있다. 이것을 통해 귀초석 가운데 이 부재만 다듬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⁵¹⁾

또한 협칸 길이는 측면 칸 길이보다 짧은데, 이러한 건물은 대적사 극락전 이외에 청양 장곡사 하대웅전, 강진 정수사 대웅전, 통영 용화사 보광전, 고성 옥천사 대웅전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⁵²⁾ 창호는 밑부분에 세로방향으로 2등분하여 궁판을 넣은 띠살무늬로 장식하였고 어칸에 3분합, 협칸은 쌍여단이문을 두었으며, 우측면 가운데 기둥에는 외쌍여단이문을 달았다.⁵³⁾ 공포는 내·외 2출목으로 처리하였고 출목간격도 동일하지만, 전

48)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양란 전후로 용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 수 있다. 양란 이전에는 용을 제대로 그리지 않아 태형을 당한 경우가 있고, 보자기에 그려진 용봉을 검열하거나 말다래에 용을 그려 진상했다. 심지어 옷에 그려지는 용 문양의 발톱 수에 따라 계급을 규정하였다. 이처럼 조선전기에는 왕실에서 용을 엄격하게 규제하였다. 하지만 양란이후에는 구체적인 규정을 찾을 수 없는데, 이것은 전쟁 이후 왕권이 약화되고 용을 향유하는 문화층이 넓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희진, 「朝鮮後期 龍圖像 研究-회화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8, pp. 40-43.

49) 소맷돌에 보이는 용은 발, 이빨, 수염 등이 생략 되어 있으며, 맨 위에 표현된 몸통에만 비늘을 표현했다. 얼굴과 몸이 이어지는 부분은 어색하게 조각되어 있으며, 주둥이 또한 어진 작품과 비교했을 때 단순하다. 이진용, 「朝鮮朝 龍 紋樣의 造形性 研究 -朝鮮 白磁을 中心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2, p.31.

50) 계단은 자연석계단과 장대석계단이 있다. 대부분의 장대석계단은 계단면석이라 불리는 부재로 계단 측면을 막는 것으로 마무리를 한다. 계단면석은 돌 하나로 만드는 방법과 가구식기단처럼 지대석 위에 면석을 올리고 소맷돌을 올리는 방법이 있다. 김왕직, 위의 책, pp. 67-69.

51) 자연석초석은 자연석을 가공없이 사용한 초석으로 덩벙주초라고 하기도 한다. 자연석 초석은 주로 할석을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천석이 미끄럽고 음을 상징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주로 서민들의 집에 사용했지만 사찰의 대웅전 같이 큰 건물에도 쓰인다. 김왕직, 위의 책, p. 76.

52) 배경남, 위의 논문,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6, p. 71.

53) 문화재청, 『文化財大觀』 보물편·木造 改訂版, 2004, p. 760.

면과 후면의 공포모습에는 차이를 두었다. 처마는 전후면 모두 겹처마로 구성하였고, 서까래는 장연(長椽)만 사용하였다.⁵⁴⁾

대적사 극락전은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 첫째는 부재를 다시 사용한 흔적이다. 극락전 계단 왼쪽에 장방형 석재가 있는데, 이 부재에서 양각으로 표현한 거북이를 볼 수 있다. 석재의 위치로 보아 법수석(法首石)을 표현한 것으로 추정한다.⁵⁵⁾ 이 법수석은 기존에 있었던 부재를 다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왼쪽과 뒤쪽 면의 단면이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법수석을 세우려고 계획 했다면, 단면을 치석하여 앞쪽면과 오른쪽 면처럼 매끄럽게 제작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부재는 치석이 되어있지 않을뿐더러, 정면에 새긴 거북이조차 중앙에 위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재가 가지는 원래 목적은 법수석이 아니라 건물 어딘가에 사용했던 부재로 추정한다.⁵⁶⁾

대적사에서는 법수석 이외에도 부재를 다시 사용한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극락전으로 올라가는 계단 디딤돌의 크기가 맞지 않고, 계단 면석에 새긴 구름문양과 땃돌의 접합부분이 어긋나있다. 또한 깨져 있는 기단 면석을 다른 돌로 받쳐놓은 모습 등을 통해 이전에 있었던 부재를 다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⁵⁷⁾

이러한 흔적은 『대적사 극락전 수리보고서』에 잘 나와 있다. 대적사 극락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기단 위쪽 면으로부터 1.5m 정도 아래에 불탄 흔적과 황토색의 기와편이 발견되었다. 특히 계단이 있는 부분에서 불에 탄 법씨가 옹기에 담겨있는 상태로 다량 출토됐는데, 이것을 미루어보아 현재 극락전이 지어지기 전에 건축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⁵⁸⁾ 기단에 탄 부분은 건물을 다시 지을 때까지 그대로 둔 것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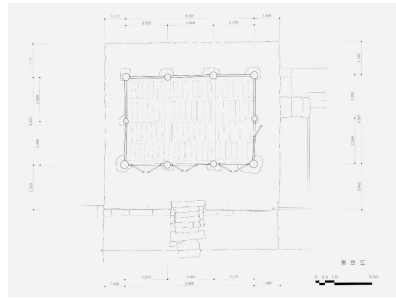
54) 지붕은 세 번의 번와공사가 있었다고하며, 현재 대적사 지붕은 1987년 번와공사 이후 모습이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위의 책, 2002, p. 31.

55) 법수석은 불국사 연화교·칠보교, 청운교·백운교처럼 계단에 난간이 있는 경우, 난간을 고정하기 위해 소맷돌이 시작하는 부분에 세우는 기둥석을 말한다. 난간이 없어도 태극, 구름, 연꽃 등 다양한 문양을 새겨 세워두기도 하며, 송광사 일주문처럼 사자조각을 하기도 한다. 김왕직, 위의 책, p. 67

56) 「한국의 고건축」에서는 계단 혹은 기단의 부재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계단의 장대석에는 조각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과 계단 부재 또한 재활용했다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법수석을 계단부재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따라서, 필자는 거북이 문양을 통해 기존의 부재는 기단면석에 활용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위의 책, 2002, p. 42.

57) 문화재청, 위의 책, 2004, p. 760.

되고, 재건할 때 그 부분을 제거하지 않고 성토하여 건물을 세운 것으로 짐작된다. 자세한 것은 발굴조사가 실시되어야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정황을 볼 때 극락전 이전에 건물이 존재하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⁵⁹⁾



둘째는 평면구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건물내부에 고주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불전의 내부공간을 넓게 사용하기 위한 장치이며, 대적사와 같은 형태를 후치법(後置法)이라 한다.⁶⁰⁾ 후치법은 조선후기 법회가 중시되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예이다(圖 9).⁶¹⁾

셋째는 계단면석이 서로 다른 문양이 양각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부조는 건축물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이다.⁶²⁾ 계단의 왼쪽면석을 보면 기하학적인 문양이 있는데 파도가 치는 것을 형상화한 와문이 있으며, 와문 사이로 부채꼴 모양이 조각되어 있다(圖 10). 왼쪽면석 오른쪽 아래에는 소용돌이를 표현한 와문에서 힘차게 튀어나오는 물고기가 있다. 오른쪽면석에는 여의주를 물고 있는 용이 있다. 거북이는 두 마리가 나오는데, 한 마리는 용의 머리 위에 있고 다른 한 마리는 용 밑에서 헤엄치고 있다. 꽃 봉오리가 거북이로부터 길게 뻗어있고, 파도를 연상시키는 태극문 등이 있다(圖 11).

특히, 오른쪽면석에 새겨진 용 조각은 「용비어천도」로 불린다.⁶³⁾ 하지만

58) 文化財廳·淸道郡, 위의 보고서, 2005, p. 133.

59) 文化財廳·淸道郡, 위의 보고서, 2005, p. 133.

60) 후치법 이외에도 정치법, 이주법 등이 있다. 정치법은 측면의 주열 선상에 불단이 위치하는 것을 말하고 이주법은 불단의 위치가 측면 주열과 건물의 배면 사이에 위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후치법은 불단의 위치가 배면의 주열에 붙어있는 경우이다. 김홍주, 「18세기 사찰 불전의 건축적 특성」,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0, p. 25

61) 조선시대 숭유억불정책으로 인해 예불이 가지는 중요성이 증가하였고, 후불벽의 이동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였다. 이에 불교계는 살아남기 위한 방편으로 여러 민간 신앙을 흡수하고 기복신앙을 위주로 운영하였다. 다행히 불교는 어느 정도 대중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었고 특히, 임란 이후에 민심을 위로하는 역할을 하며 사회의 중심세력으로 재등장 할 수 있었다. 송은석, 「조선후기 佛殿 내 儀式의 성행과 佛像의 造形性」, 『미술사학연구』 263, 2009, p.79.

62) 국립문화재연구소, 위의 책, 2002, p. 42.

63) 「용비어천도」는 『용비어천가』보다 부족했던 ‘규제지’가 강조되어 ‘칭송제’의만큼 중요한 지위로 격상되었다. 이는 임금과 신하의 입장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

용 조각이 정말 「용비어천도」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아래의 '1. 극락전과 기단부조'에서 살펴보려 한다.⁶⁴⁾



圖 10. <대적사 왼쪽 계단 면석>



圖 11. <대적사 오른쪽 계단 면석>

1. 극락전과 기단부조

오른쪽 계단 면석에 새겨진 각종 문양은 「용비어천도」라고 불리고 있다. 관련된 문서에 따르면, 보물로 지정된 사유에 대하여 건물의 시기성과 기단부조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을 뿐, 「용비어천도」는 찾아 볼 수 없다.⁶⁵⁾ 이후 1992년에 발간된 청도군지에 「용비어천도」가 언급되어 있으며, 사찰 내에 위치한 문화재안내판에서도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⁶⁶⁾ 이러한 내용을 미루어보아 문화재지정 이후, 「용비어천도」로 부르는 것으로 보이며, 그 연유에 대해서는 찾을 수 없었다. 현존하는 도상도 없었기에 계단면석에서 보이는 조각이 과연 『용비어천가』를 나타내는 「용비어천도」인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용비어천가』는 한글로 제작된 최초의 시가이며,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⁶⁷⁾ 특히,

인다. 이처럼 『용비어천가』의 악장 활용양상은 그 시대에 나타나는 정치적 이상이나 세력관계와 연관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 즉, 「용비어천도」는 이런 현상의 초기적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임과 동시에 신료들의 악장관(樂章觀)을 대변하는 사례이다. 김승우, 「「용비어천도(龍飛御天圖)」에 대한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1, 2008, pp. 169-172.

64) 「용비어천도」의 도상은 안타깝게도 남아있는 것이 없으나, 『용비어천가』의 내용으로 「용비어천도」의 모습을 추정한 연구는 진행된 바 있다. 김승우, 위의 논문, 2008, pp. 145-175.

65) 문화재관리국, 『87년 문화재 수리 보고서』, 啓文社, 1989.

66) 청도군, 위의 책, 1991, p. 1024.

『용비어천가』에 등장하는 용은 임금을 상징하며, 총 125악장 가운데 총 여섯 번 등장한다.⁶⁸⁾

[표 3] 『용비어천가』에 등장하는 용에 관련된 구절

번호	장(章)	한문	한글
1	右第一章	海東六龍飛, 莫非天所扶, 古聖同符.	해동의 여섯 용이 날으시어서, 그 행동하신 일마다 모두 하늘이 내리신 복이시니, 그러므로 옛날의 성인의 하신 일들과 부절을 합친 것처럼 꼭 맞으시니.
2	右第二十二章	赤帝>將興, 白帝劍戮, 火德之王, 神婆告止. 黑龍卽殪, 白龍使活, 子孫之慶, 神物復止.	적제가 일어나실 것일때, 백제가 한 칼에 죽으니, 화덕의 왕을 신의 할미가 알리니. 검은 용이 한 살에 죽어 흰 용을 살려 내시니, 장차 자손에게 있을 복을 신물이 사되니.
3	右第二十九章	漢德雖衰, 帝胄中興, 大耳之兒, 臥龍承之. 世亂將救, 天姿奇偉, 大耳之相, 詔使美之.	한 나라의 덕이 비록 쇠퇴하나, 한 나라 임금의 후예가 다시 일어날 것일때, 큰 귀 가진 아이를 와룡이 도와드리니. 세상 어지러움을 구하려고 나서어서, 하늘에서 주신 그 모습이 뛰어났으므로, 큰 귀 가진 그 상을 조사가 일컬으니.

67) 『용비어천가』를 살펴보면 이성계는 고려를 걱정한 충신으로 묘사되고, 정몽주를 죽인 이방원은 아버지를 위한 효자로 표현된다. 조선을 건국하는 과정에서도 이성계는 끝까지 고려의 신하로 있었으나, 그러한 자세가 오히려 새로운 왕으로 추대되고 백성들이 감응하여 고려가 스스로 무너진 것처럼 표현하였다. 이러한 장치들을 통해 『용비어천가』의 목적은 조선 건국을 정당화하고 이성계를 이상적인 유교적 군주상으로 그려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다함, 『『龍飛御天歌(용비어천가)』에 나타난 易姓革命(역성혁명)의 구체적 서사와 그 함의』, 조선시대사학보 72, 2015, pp. 41-49.

68) 『용비어천가』는 훈민정음으로 만들어졌지만, 사대부를 위한 한문으로 만들어진 『용비어천가』도 존재한다. 『세종실록』에는 한문이 실려 있어, 본고에서는 한문을 적도록 하였다. 『世宗實錄』 147卷 樂譜 龍飛御天歌 龍飛御天歌

4	第五十五章	逐鹿未擒， 燕人向慕， 遠致梟騎， 戰陣來助。 潛龍未飛， 北人服事， 常佩弓劍， 左右昵侍。	사슴을 쫓아 아직 한 다리를 끌어 당기지 못하매, 연인들이 사모하여 용맹한 기마병을 보내어 전진을 도와드리니. 물에 잠긴 용이 아직 날지 않으매, 북쪽 사람들이 심복하여 칼과 활을 차고 곁에 따르니.
5	右第六十九章	龍鬪野中， 四七將濟， 縱曰來思， 噬肯來詣。 火照城外， 十八子救， 縱命往近， 噬肯往就	들에 용이 싸워, 사칠 장수가 이루어낼 것이니, 오라 한들 오시겠습니까? 성 밖에 불이 비치어, 十八子가 구할 것이니 가라 한들 가시겠습니까?
6	右第一百章	水上之龍， 向彼江亭， 迺是天下， 始定之徵。 殿上之龍， 向我御床， 迺是寶位， 將登之祥。	물 위의 용이 강가의 정자를 향하니 천하가 정해질 조짐이시더라. 집 위의 용이 평상을 향하니 임금의 자리에 오르실 조짐이시더라!

표의 내용을 통해 용은 왕을 상징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대적사 계단에 서 보이는 도상과 유사한 내용은 제55장과 제100장이 있다. 『용비어천가』의 구성은 선행과 후행으로 되어있다. 선행에는 중국 고사(故事)를 서술하며, 후행은 중국 고사에 빗대어 조선의 고사를 서술하고 있다.⁶⁹⁾ 이러한 구성으로 볼 때, 제100장에 나오는 용은 선행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중국의 예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100장에 등장하는 용을 대적사에 연관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제55장에서 보이는 용은 후행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대적사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55장에 나와 있는 용은 아직 물에 잠겨있는 용인데 반해, 기단부조에 나타나는 용은 하늘을 날고 있으므로 도상이 일치하지 않는다. 설령, 면석조각이 『용비어천가』 제55장에 나타난 모습을

69) 최연식, 이승규,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와 조선 건국의 정당화」, 『한국정치사상사』 7(1), 2008, p. 256.

표현했더라도 그 밑에 새겨진 꽃봉오리와 거북이를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오른쪽면석은 「용비어천도」가 아니라 불교적인 내용을 담은 조각으로 보인다. 용 밑에 있는 거북이에서 길게 뻗어나가는 꽃을 근거로 볼 수 있는데, 이런 모습은 『甘露軍荼利菩薩供養念誦成就儀軌』에서 ‘…그 형상은 삼각이고 점점 커져서 크기가 수륜과 같고, 홀연한 사이에 금거북의 등으로부터 여덟 잎의 큰 연꽃이 솟아나는데, 금강이 줄기가 되고 광대하기가 무량한 유순이다.’라는 구절에서 찾을 수 있다.⁷⁰⁾ 비록 꽃이 봉오리모양을 하고 있지만, 거북이의 몸에서 연꽃이 나온다는 맥락은 대적사의 예와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거북이는 사찰에서 매우 친숙한 동물이다. 경전에서 다양한 의미로 많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위험에서 구출해주는 존재, 이상향으로 가는 것을 도와주는 존재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⁷¹⁾ 이와 같은 내용을 경전에서 찾으면 다음과 같다.

…때가 되자 자라가 와서 말하였다.

‘…홍수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빨리 배 위로 올라타셔야 하옵니다. 제가 가는 대로 따라오시면 반드시 환난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가 그 자라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데 … 마침내 풍요한 땅으로 가게 되자, 자라는 하직하며 말하였다. ‘은혜를 갚았으므로 이만 물러가겠나이다.’…『보시도무극경』에 나온다.’

『經律異相』 卷第十一 隨機見身下菩薩部 第四⁷²⁾

홍수는 고난, 시련, 역경을 상징하며, 배는 ‘이상향을 가는 수단’으로 다른 경전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세 번째 문장에서 보이는 ‘환난을 면할 수 있다.’는 문장을 통해 『경률이상』에서도 배를 수단으로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거북이를 따라 풍요한 땅에 도착하는 내용이 나오며, 이는 곧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이상향에 도착했음을 말해준다.

이렇듯 ‘거북이는 이상향으로 가도록 도와주는 존재’임은 불전설화에서

70) ‘爲成就變化蓮華故。當觀噴字門。流散赤焰而成火輪。其形三角。漸引量同水輪。忽然之間。從金龜背踊出八葉大蓮華。金剛爲莖。廣大無量由旬…’, 『甘露軍荼利菩薩供養念誦成就儀軌』一卷.

71) 이러한 예가 나오는 경전은 『經律異相』과 『廣弘明集』 등이 있다.

72) ‘…時鼈來曰。洪水至矣。可速上載。尋吾所之。必獲無患。船尋其後。…鼈曰。悔哉遂之豐土。鼈辭曰。恩畢請退。…出布施度無極經。’, 『經律異相』 卷第十一 隨機見身下菩薩部 第四.

도 찾아 볼 수 있다.⁷³⁾ 대표적으로 ‘별주부전’이 있는데, 여기서 거북이는 ‘용궁으로 가는 탈 것’으로 나온다(圖 12).⁷⁴⁾ 이야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거북이가 토끼를 용궁으로 데려가기 위해 유혹하는 장면이다.



圖 12. <토끼와 거북이>, 조선후기, 남장사 극락보전 내부 창방

거북이는 토끼를 구슬릴 때 ‘바다 속에 섬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맑은 샘과 흰 돌이 있고 무성한 숲과 맛있는 과실이 있으며, 추위와 더위도 없고 사나운 날짐승도 침범할 수 없다. 그곳으로 가면 편안하게 살 수 있어 아무런 근심이 없다.’고 설명한다.⁷⁵⁾ 이것을 토대로 거북이는 용궁을 이상향으로 묘사했음을 알 수 있고, 토끼를 등에 태움으로써 이상향으로 가는 탈 것으로 표현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⁷⁶⁾

거북이는 경전과 불전설화에서 이상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도와주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거북이는 불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호법을 상징하는 용과 함께 기단에 조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대적사 극락전 오른쪽 계단면석에 있는 조각을 『용비어천가』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용비어천가」가 아니라 불교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 거북, 연꽃

73) 다음 경전에서도 거북이를 ‘이상향으로 가는 수단’으로 표현되는 경우를 찾을 수 있다. 『經律異相』 卷第十八 第六僧部 第七, ‘…時化沙門語言比丘. 吾念世人不如此龜. 有護命之鎧. 能令水狗不得其便…出法句經譬喻第二卷.’

『經律異相』 卷第四 十四男庶人部 上, ‘…後日洪水大起人民死盡. 慈羅上樹呼鼈. 鼈便來至. 慈羅坐鼈背上…出阿難現變經.’

『廣弘明集』 誠功篇 第二十七卷 修理六根門第四, ‘…龜從河出. 水狗將噉龜. 龜縮頭尾四脚藏於甲中. 不能得便狗去還出. 便得入水. 道人因悟. 我不及龜. 放恣六情. 不知死至. 輪轉五道皆由意根….’

74) 거북이가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별주부전을 참고하였다. 별주부전은 인도에서 넘어온 불전설화이다. 인도에서 교훈을 주기 위해 만든 우화로서, 원래 등장하는 동물은 악어와 원숭이였다. 우화가 경전에 삽입되고 불교가 전파되면서 중국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중국으로 들어올 때, 자라와 원숭이 혹은 용과 원숭이로 바뀌었다. 중국에서 각색된 내용이 한국으로 들어올 때는 토끼와 거북이로 바뀌었는데, 이는 『삼국사기』 「열전」 김유신조를 보면 알 수 있다. 허균, 『사찰 장식 그 빛나는 상징의 세계』, 돌베개, 2000, p. 59.

75) 『三國史記』 卷第四十一 列傳 第一, ‘…海中有一島 清泉白石 茂林佳菓 寒暑不能到 鷹隼不能侵 爾若得至 可以安居無患 因負龜背上 游行二三里許…’.

76) 별주부전에서는 자라가 나오며, 구토지설에서는 거북이가 등장한다. 거북이와 자라는 다른 동물이지만 설화에서는 둘을 분명히 구분 짓지 않는다. 허균, 위의 책, 2000, p. 62.

등 불교 교리의 상징물을 새겼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불교 교리의 상징물은 전각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극락전 어칸의 좌우 기둥 끝에는 용의 머리가 장식되어있다.⁷⁷⁾ 이렇게 용두가 장식되어 있는 건물은 ‘반야용선’을 상징한다고 보기도 한다. 이러한 내용은 『금강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 『금강반야바라밀다경』이라고도 하며, 석가모니와 그의 제자 수보리가 대화를 하는 형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경전 이름이 가지는 의미는 ‘금강석과 같은 지혜를 얻어 피안으로 간다.’이며, 부처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서 피안에 도달하는 수단을 언급하고 있다.

“...수보리아, 만약 이 보살에게 법상이 있으면 곧 아상·중생상·인상·수자상에 집착할 것이다. 왜냐하면 수보리아, 마땅히 법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법을 취하지 않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니라. 그런 의미가 있는 까닭에 여래는 항상 뗏목에 비유한 법문을 설하니, 법이라는 것은 마땅히 버려야하면 또 버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니라...”

『金剛般若波羅蜜經』⁷⁸⁾

『금강경』에서 뗏목을 설법에 비유하였다. 이상향에 도착하면 버려지는 뗏목처럼 자신의 법문을 뗏목에 비유하여, 법에 얽매이지 말고 법마저도 버려야함을 설명한다. 즉 설법은 중생을 깨우치기 위한 행동이고, 이러한 설법을 뗏목에 비유하여 이상향으로 가는 수단으로 표현한 것이다. 『금강경』이외에도 뗏목을 깨달음을 얻는 과정 혹은 이상향으로 가는 수단으로 비유한 경전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⁷⁹⁾

77) 용두, 봉황두 등 서수형의 모습은 불교와 민간설화에 근원을 두고 있다. 서수형 공포는 조선중기 이후에 불전을 화려하게 장엄하려는 경향과 앞에서 언급한 불교와 민간설화의 결합으로 인해 나타나기 시작한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공포의 유형과 상관없이 서수형 공포가 올라간다는 점이다. 정수희, 위의 논문,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9, p. 76.

78) 『金剛般若波羅蜜經』, ‘若取法相, 卽著我, 人衆生, 壽者. 何以故? 若取非法相, 卽著我, 衆生, 壽者, 是故不應取法, 不應取非法. 以是義故, 如來常說: 『汝等比丘, 知我說法, 如筏喻者, 法尚應捨, 何況非法.』’.

79)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전에서 뗏목을 피안에 도달하는 수단으로 설명한다.
『廣弘明集』第二十七卷 誠功篇 第二十六 敬重正法門., ‘故使教門亦有八萬四千法藏. 至於病銷惑遣. 藥亦隨亡. 如筏喻者. 可以情悉.’
『廣弘明集』第二十九卷 統歸篇 第十破魔露布文, ‘其水彌漫廣深難際. 又值旋嵐傾勃. 電靄瀉澍擊浪揚波. 海神竟涌七等雜類. 或飛或沈. 夜叉守塗羅刹據津. 流瞽流聾覆沒善財. 其欲溷泳鮮不沈溺. …擊驟度能僉曰. 或可卽勒軍士爲渡水. 故備取諸草木編以爲筏. 附令抱蹋橫波直進.’

“...거룩합니다. 위없는 세존이시여, 세존의 말씀은 그 음성이 미묘하여 헤아릴 수 없고 가장 뛰어나 일컬을 수 없습니다. 중생을 위하여 지혜 눈[慧眼]이 없는 자에겐 지혜의 광명을 내시고, 괴로움의 짐을 지닌 자에겐 그 짐을 물리치시고 생사의 바다에 유전(流轉)하는 자에겐 큰 배의 뗏목[船筏]을 만들어 주십니다...”

『大方等大集經』 卷第三十八 日藏分定品 第四⁸⁰⁾

『대방등대집경』에서 보이는 뗏목과 『금강경』에서 보이는 뗏목은 약간 차이를 보인다. 특히 마지막 문장은 뗏목이 가진 의미를 『금강경』 내용보다 더욱 직접적으로 표현하였다. ‘생사의 바다’라는 표현을 통해 생사 인과에 끊임없이 윤회하는 것을 묘사하였다. 이어서 큰 뗏목은 중생을 구원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법문을 뗏목에 비유하여, 법문을 통해 극락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이렇듯 뗏목은 다양한 경전에서 등장하고 이상향으로 가는 도구 혹은 역경을 헤쳐나가는 수단으로 표현했다. 언덕은 피안의 세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물을 건너는 뗏목은 곧 배를 상징하는 것이다. 즉, 뱃머리를 표현하기 위해 전각에 용두로 장식하였으며, 부처가 있는 전각의 내부는 선실을 나타낸다.⁸¹⁾ 기둥 위에 용을 조각한 것은 전각이 ‘반야용선’임을 강조하려는 표현으로 보인다.⁸²⁾ 이런 모습은 반야



圖 13. <般若龍船幡>, 1896년, 비단, 104x87, 1폭, 양산 통도사 성보박물관 소장

용선도에서 확인 할 수 있는데, 배의 가운데에는 부처를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배 앞머리에는 용 얼굴이, 배 후미에는 용의 꼬리가 그려

『金剛頂瑜伽中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論』, ‘...復次諸佛慈悲。從眞起用。救攝衆生。應病與藥。施諸法門。隨其煩惱對治迷津遇機達於彼岸。法亦應捨。無自性故...’.

80) 『大方等大集經』 卷第三十八 日藏分定品 第四, ‘...善哉, 善哉! 無上世尊! 言音微妙不可思議, 最勝難量不可稱說, 無慧眼者爲出智光, 苦擔衆生能爲除却, 於流轉海作大船筏。如是善巧無礙智說, 誰有聞者不樂發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

81) 대적사는 건물의 앞면에 용두장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뒷면에는 용미장식이 없다. 이는 대적사 뿐만 아니라 영남지역에 있는 다른 사찰에서도 용미장식을 찾아볼 수 없다. 이와 반대로 호남지역의 경우엔 용미부분까지 섬세하게 조각하여 걸구했다. 이는 영남지역과 호남지역의 문화차이에 기인했다고 생각한다. 김현정, 『조선후기 사찰건축의 용신앙 의장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1, pp. 55-56.

저 있다(圖 13).⁸³⁾

기단에 있는 해양생물조각은 전각이 반야용선이라는 것을 강조해준다. 일반적으로 해양생물은 사찰의 화재를 막아주는 벽사의 의미로 사용되지 만,⁸⁴⁾ 대적사는 극락전을 ‘반야용선’으로 표현하기 위한 장치라고 짐작된

[표 4] 호남지역과 영남지역의 용 조각비교 (김현정, 위의 논문, 2011, p. 56 표 참조.)

호남지역 사찰		영남지역 사찰	
개암사	불회사	성형사	울곡사
내소사	흥국사	불영사	
불갑사	정혜사	기림사	
미황사	능가사	복지상사	
흥국사	선암사	대적사	
승림사	화엄사	운문사	
선운사	쌍계사	대비사	
◎ 불전의 여러 곳에 배치 ◎ 용 전체형상을 완성 ◎ 단독 부재로 조각한 뒤 이음 ◎ 용미부분도 섬세하게 조각하여 결구함		◎ 불전의 중점부분에만 배치 ◎ 단순한 형태만 새김 ◎ 부재자체에 직접 조각 ◎ 용두만 새김	

82) 이러한 현상은 불전 내·외부에서 불교적 교리를 직설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목적은 조선후기의 대부분의 사찰에서 장엄을 통한 불국토의 재현에 있다. 정수희, 위의 논문, 2009, p. 78.

83) 현존하는 조선후기 반야용선도 중 가장 빠른 그림은 영천 은해사 정보박물관 소장 ‘은해사 염불왕생첩경도’이다. 이 그림을 시작으로 근대까지 20여 점이 있지만, 시기를 알 수 있는 작품은 일곱 점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화기가 없어 시기를 비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김지연, 『조선후기 반야용선도 연구』, 『미술사학연구』 281, 2004, pp. 110.

[표 5] 18~20세기 제작시기를 알 수 있는 반야용선도 (김지연, 위의 논문, 2014, p. 110~111 표 참조)

번호	시기	불화명	재질	소장처	비고
1	1750년	은해사 염불왕생첩경도	건본	영천 은해사 정보박물관	
2	1788년 경	기림사 삼세불도	건본	경주 기림사	약사전
3	1879년	위봉사 극락왕생도	면본	익산 혜봉원	대웅전
4	1896년	반야용선변	건본	양산 통도사 정보박물관	
5	1921년	심우사 일심삼관문도	면본	거창 심우사	대웅전
6	1940년	관음사 극락왕생도	면본	제주 관음사	
7	1947년	정혜사 반야용선도	면본	익산 정혜사	명부전

84) 물에 사는 생물들은 흔히들 불을 막는 의미로 사용된다고 이야기한다. 사찰에 쓰인 대표적인 예로 울진 불영사를 꼽고자한다. 불영사 대웅보전의 기단 하단에는 귀부가 있다. 이 귀부는 하대석과 몸돌이 하나의 돌로 조각되는 것과 달리, 하대석이 생략되고 대신 장대석을 1매 놓았다. 또한, 귀부의 몸통을 생략하고 있어 기단 하부에 특수한 목적을 두고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기단면석이 거북이의 전체 넓이에 맞춰 잘라 끼웠다

다. 기단에서 해양생물이 발견되는 사찰은 대적사 이외에도 여수 홍국사 대웅전, 해남 미황사 대웅전, 순천 정혜사 대웅전 등이 있다. 이 사찰은 모두 기단에서 해양생물을 찾아볼 수 있으며, 어칸 기둥 위에는 용두가 있다. 이러한 점을 통해 언급된 사찰은 전각을 반야용선으로 표현하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내륙에 위치한 대적사와는 달리 다른 사찰은 모두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⁸⁵⁾

이러한 이유로 기단에 바다생물이 등장하는 이유에 대해 홍국사, 미황사, 정혜사는 해안지방에 위치한 지역적인 특색으로 보았고, 기단의 해양생물과 전각은 별개로 해석되었다.

하지만, 해양생물과 절의 입지를 연관 짓는 것은 재고될 여지가 있다. 대적사를 통해 입지와 연관시키는 것 보다, 기단과 전각을 함께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사찰 기단에 해양생물이 보이는 것은 해안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각을 반야용선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2. 불상과 승호파

대적사 극락전의 내부는 크기에 비해 화려하다. 특히, 불전 내부를 장식하고 있는 각종 장엄물을 통해 조선후기에 사찰을 불국토로 표현하려는 의도를 알 수 있다. 먼저 불화를 살펴보면, 다양한 주제의 그림이 불전 내벽을 장식하고 있다. 좌우측 벽면에는 지장보살, 인로왕보살, 혜가단비도, 비천 등이 있고, 내부 공포 사이에는 고사인물도, 독성도 등 다양한 주제가 그려져 있다. 측면 출입문 위에 있는 비천상을 포함하여 고사인물도와 독성도 등은 18세기 불화로 생각되나 후불탱은 20세기 작품이다.⁸⁶⁾ 대들보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단청은 용을 표현하고 있다. 푸른색 단청은 하늘을 표현하고, 왼쪽에는 화염에 휩싸인 여의주가 있다. 용은 구름사이로 얼굴을 내밀고 여의주를 바라보고 있다. 불상 뒤편에는 아미타삼존도가 있

는 점과 그 상부로 두 매의 면석 맞춤이 거북이의 중앙부에 맞는 형태를 보인다는 점은 기단을 조성할 때 거북이의 감입을 고려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추정한다. 오세덕, 「울진 불영사(佛影寺) 대웅보전(大雄寶殿)의 특징(特徵)과 건축술(建築術)」, 『문화재』 47, 2014, pp. 53-54.

85) 대적사는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있지만, 불전을 반야용선에 대응시키고자 했던 조영자의 의지로 보는 경우도 있다. 양상현, 「사찰 불전 장엄의 상징 연구」, 『역사민속학』 19, 2004, p. 331.

86) 국립문화재연구소, 위의 책, 2002, p. 189.

으며, 불단 오른쪽에는 20세기에 만들어진 칠성도가 있다(圖 14).⁸⁷⁾

대적사 극락전 안에는 세 구의 불상이 봉안되어 있다. 삼존불 재료는 석재이며, 본존불의 높이는 72.3cm, 무릎 폭은 49.3cm로 양옆 보살보다 약간 크다.⁸⁸⁾ 하체에 비해 긴 상체와 움츠러든 어깨, 구부정하게 내려다보는 모습 등 조선시대 불상이 가지는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본존의 머리에는 정상계주가 있고, 그 아래로 굽은 반구(半球)로 나발을 나타내고 있다(圖 15). 중심에는 반원형 중간계주가 주변의 나발보다 작은 크기로 배치되어있다. 이러한 조각 기법 때문에 중간계주를 생략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열을 다르게 조각하는 것으로 중간계주를 충실히 표현하고 있다. 중간계주는 생략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나발이 가운데를 향하여 모이면서 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얼굴은 방형에 가깝게 조각했고 귀는 얼굴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 크게 조각했다. 귀에는 삼각와(三角窩)가 표현되어 있는데, 초승달 모양으로 깊게 음각하였다. 이마를 표현하기 위해 눈썹 밑으로부터는 굴곡지게 깎았다. 양 눈썹 끝에서부터 미간을 지나 코 옆으로 이어지는 선으로 인해 코가 높아 보이며, 양쪽 볼이 도톰하게 느껴진다. 입꼬리가 선각으로 표현되어 볼이 더욱 강조되었으며, 입꼬리에서 출발하는 선은 입술 선을 지나 자연스럽게 인중과 연결된다.

불상의 오른쪽 어깨 위에는 가사가 덮혀있다. 가사 아래로는 부견의가 조각되어 있으며, 손목 위에는 단을 내어 부견의를 표현하고 있다. 오른손 손가락은 가지런히 펴서 오른쪽 무릎 위에 올리고 있다. 왼손은 오른쪽 발바닥 위에 놓여있는데, 손바닥이 천장을 보고 있다.

87) 현재는 본존불 뒤에 아미타삼존불을 표현한 그림이 걸려있다. 하지만 1989년 사진자료를 보면 영산회상도가 걸려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현재 그림의 행방은 알 수 없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위의 책, 2002, p. 39.

88) 좌협시보살은 상높이 61.5cm, 무릎폭 42.5cm이며 우협시 보살은 상높이 63.5cm, 무릎 폭은 42.5cm이다. 문화재청·(재)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문화유산발굴조사단, 『한국의 사찰문화재-대구광역시경상북도 I 자료집』, 2007, p. 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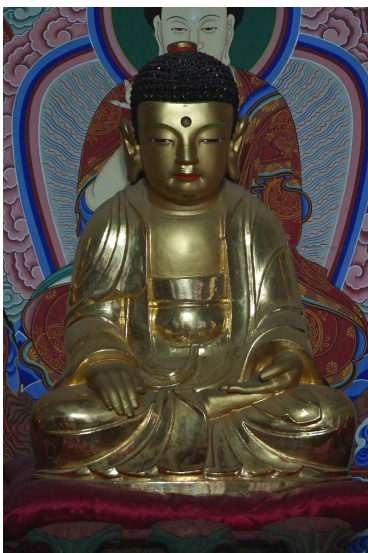


圖 15. <大寂寺 極樂殿 石造佛坐像>, 1674년 추정, 돌, 상높이 72.3, 무릎폭 49.3, 청도 대적사 극락전

불상의 옷주름은 어깨에서 시작하여 배까지 깊은 ‘U’자형을 그리며 내려오고 있고, 부견의가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승기지 앞으로 삽입되는 형식이다. 승기지의 가운데에는 횡으로 두 줄을 넣어 고정하고 있는 띠를 표현하였고, 그 이외에 주름이나 특별한 장식은 보이지 않는다. 하반신은 가부좌를 하고 있는데, 오른쪽 가사 자락은 오른쪽 발목을 넘어 오른쪽으로 퍼져나간다. 이때, 발목 부근에서 가사를 살짝 접어 자연스러움을 강조했다. 왼쪽 가사는 오른쪽 발등 밑에서 빠져나와서 왼쪽으로 퍼져나간다. 퍼져나가는 왼쪽가사의 첫 번째 옷주름은 오른쪽 가시처럼 살짝 반전이 나타난다.⁸⁹⁾ 제작자가 묘사한 옷주름을 통해 불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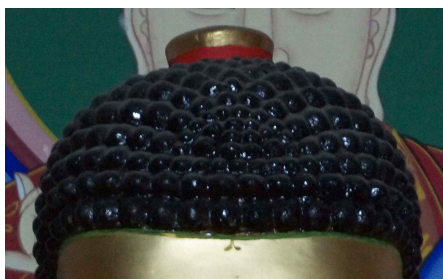


圖 15-1. <大寂寺 極樂殿 石造佛坐像> 육계 표현.



圖 15-2. <大寂寺 極樂殿 石造佛坐像> 옷주름 표현.

을 알 수 있다.

협시보살상에서 보이는 조각기법은 불상에서 보이는 기법과 닮아있어 차이점을 두기 힘들다(圖 16, 圖 17). 삼존상을 비교해보면 같은 제작자가 만들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불상과 보살상에서 보이는 공통점 가운데 첫

89) 불상의 발목에서 보이는 가사자락의 반전요소는 시간이 지나면 도식화가 되어 같은 비율로 접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승호파를 구별하는 요소 중 하나로 자리잡는다.

째는 얼굴의 형태, 둘째는 삼각와를 표현한 방법, 셋째는 깊은 ‘U’자형 옷주름, 넷째는 무릎 앞쪽에서 부채꼴로 펼쳐지는 가사자락 등이 있다.

협시보살은 전체적으로 공통점이 많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차이점이



圖 16. <大寂寺 極樂殿 石造菩薩坐像(右)>, 1674년 추정, 돌, 상높이 63.5 무릎폭 42.5, 청도 대적사 극락전



圖 17. <大寂寺 極樂殿 石造菩薩坐像(左)>, 1674년 추정, 돌, 상높이 61.5 무릎폭 42.5, 청도 대적사 극락전

있다. 먼저, 보관에 새겨져 있는 조각이 다르다. 우협시보살은 연화문이 보관 끝까지 장식 되어 있다. 하지만 좌협시는 중간까지 새겨져 있고, 그 위로는 용용을 표현했다. 승기지 앞에서 삽입되는 가사 자락을 표현한 방법에도 차이가 있다. 우협시보살은 본존불과 똑같이 부견의가 오른쪽 팔을 넘어 승기지 앞으로 완만하게 삽입된다. 좌협시보살은 왼쪽 가사자락이 승기지 앞으로 완만하게 들어간다. 협시보살에 표현된 하의 가사자락에서도 서로 다른 점이 발견된다. 좌협시보살은 본존불과 같이 마찬가지로 반전처리가 되어있지만, 우협시보살에 표현된 가사자락은 반전이 없고 밋밋하다.

현재 알려진 문헌 자료로는 삼존상 만든 제작자와 제작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몇 가지 형식 및 양식 특징을 통해 이 삼존불이 승호파(勝湖派)와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승호파란 승호와 함께 두 번 이상 보조 조각승으로써 불사에 참여하고, 이후에 수조각승으로 불사를 주도하는 승려를 의미한다.⁹⁰⁾ 물론 불상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승호의 양

식을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불상 제작자를 추론하기에 앞서 승호파의 수장인 승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승호는 17세기 후반에 경상도 일대에서 활동했던 조각승이며, 그가 승장이 된 배경은 알 수 없다.⁹¹⁾ 승호와 연관된 가장 빠른 기록은 청허(淸虛)가 조성한 1640년 거창 심우사 목조아미타불좌상이다(圖 18). 이 때 승호는 보조 조각승으로서 불사에 참여하였다.⁹²⁾ 그로부터 15년 후, 1655년 도우(道祐)와 함께 경북 칠곡 송림사 극락전 석조아미타삼존불좌상을 제작하였는데, 이 때 수화승은 도우이고 승호는 부화승 참여하였다.(圖 19~圖 21)⁹³⁾ 두 가지의 기록을 통해 승호는 청허 또는 도우의 제자로 보이며, 불상의 양식을 통해 청허보다는 도우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한다.⁹⁴⁾

승호가 처음 수화승으로써 조각한 작품은 1670년에 만든 도선사 석조관음보살좌상인데, 경주 불석을 사용하였다.(圖 22)⁹⁵⁾ 8년 뒤에는 1678년 청도 덕사 석조석가삼존불좌상 및 십육나한상, 석조지장보살을 만들었고, 같

90) 김소담, 위의 논문, 2016, pp. 29-30.

91) 조선후기 조각승 논문 중 승호에 관련된 논문은 다음과 같다.

최선일, 「朝鮮後期彫刻僧의 활동과 佛像研究」, 홍익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06; 송은석, 「17세기 朝鮮王朝의 彫刻僧과 佛像」,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07; 조태건, 「17世紀後半 명부전의 地藏菩薩像과 十王像 研究: 勝浩, 色難, 端應의 작품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1; 김희경, 「朝鮮後期 羅漢像 研究」, 명지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12; 김길웅, 「彫刻僧 勝浩가 제작한 불상」, 『문화사학』 27, 2007, pp. 881-894; 이희정, 「기장 장안사 대웅전 석조삼세불좌상과 조선후기 석조불상」, 『문물연구』 14, 2008, pp. 137-167; 최선일, 「17세기 후반 彫刻僧勝浩의 활동과 불상 연구」, 『禪文化研究』 8, 2010, pp. 83-119; 조태건, 「17세기 후반 조각승 勝湖 作 十王像 研究」, 『불교미술사학』 12, 2011, pp. 171-200; 김희경, 「17세기 후반 영남 조각승 승호(僧湖)작 나한상 연구」, 『미술사와 문화유산』 1, 2012, pp. 87-188; 조태건, 「도선사 관음보살좌상을 통해 본 18세기 서울지역으로의 불상 이운 배경: 북한산성 승영사찰 개창을 중심으로」, 『불교미술사학회』 22, 2016, pp. 253-277.

92) 「居昌 尋牛寺 木造阿彌陀佛坐像 造成發願文」, 1640년 5월 白紙紅書. 崇禎十三年庚辰五月日始役八月已畢□□□德山演水佛像三尊安于…畫圓 淸虛 法玄 賢允 勝浩… 송은석, 「김제 금산사 조각승 청허의 조상 활동」, 『미술사학연구』 279-280, 2013, p. 210.

93) 문명대, 「송림사 극락전 석 아미타삼존불상의 연구」, 『강좌미술사』, 27,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6, p. 26.

94) 최선일, 위의 책, 2011, p. 227.

95) 도선사 석조관음 보살은 康熙 20년(1670)에 승호가 처음 조각한 보살상으로 상륜과 함께 만들었다. 선정인 자세를 하고 있으며 방형의 얼굴, 가늘게 뜬 눈, 원통형 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보발이 어깨에서 세 갈래로 갈라진다. 원래 봉안한 곳은 어디인지 알 수 없으나 「조성원문」을 통해 대구나 칠곡 인근 사찰에 봉안 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며, 津寬寺 중수기록을 전하는 「중수원문」을 통해 원 봉안처에서 서울 진관사로 이안됐음을 알 수 있다. 조태건, 위의 논문, 2016, pp. 258-260.

은 해에 운문사 내원암에서 석조아미타불좌상을 조각하였다.(圖 23~圖 27)⁹⁶⁾ 그 다음 기록은 창원 성주사에서 발견되는데, 1681년 창원 성주사 지장전 석조지장보살좌상 및 시왕상을 조각하였음을 밝히고 있다(圖 28). 2년 뒤인 1683년에는 다시 청도로 돌아와 대비사 대웅전 석조석가불좌상을 만들었다(圖 29). 이듬해 기장 장안사에서 응진전 석조삼세불좌상 및 십육나한상, 명부전 석조지장보살좌상 및 시왕상 등 다수의 작품을 제작하였다(圖 30~圖 33). 1685년 청송 대전사 보광전 석조삼세불좌상, 1688년 군위 인각사 영산전 석조삼세불좌상 및 십육나한상을 조성하는 등 그는 경상도 지방에서 활발하게 작품을 조성하였다(圖 34~圖 36).

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전하는 기록은 1719년 경주 기림사 불상 중수·도금 발원문에서 보이는 ‘勝湖靈駕’이다. 이를 통해 1719년 이전에 열반에 들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특히, 승호와 연관된 기록은 기림사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림사를 중심으로 활동한 승려로 추정한다.⁹⁷⁾

96) 「운문사 내원암 석조아미타불좌상 복장발원문」, “康熙二十年辛酉六月日號踞山雲門寺造像奉安記…綠化秩 工匠 勝湖 只□ 秀衍 天釋 寶□ 義□ 義印 敏侃…腹藏願文阿彌陀佛聖僧□□重修…”

97) 최선일, 위의 책, 2011, p. 227.

[표 6] 17세기 승호파 조각목록(송은석, 위의 논문, 2005, p. 380 표 참조하여 작성)(圖 37~圖 44)

현 봉안처		서울 도선사	울진 불영사	칠곡 금곡사	청도 덕사	창원 성주사	청도 운문사 내원암	청도 대비사	기장 장안사	청송 대전사	군위 지보사	울진 불영사	군위 인각사
원 봉안처		서울 도선사	울진 불영사	칠곡 금곡사	청도 덕사	창원 능신사	청도 운문사 내원암	청도 대비사	기장 장안사	청송 대전사	의성 용연사	울진 불영사	군위 인각사
불상명		석조 관세음 보살좌 상	석조삼 세불좌 상 및 십육나 한상	석조아 미타불 좌상	석조삼 세불좌 상 및 십육나 한상	석조지 장보살 좌상 및 시왕상	청도 운문사 내원암 석조 아미타 불좌상	석조석 가불좌 상	석조삼 세불좌 상 및 십육나 한상	석조석 가삼존 불좌상	석조아 미타삼 존불좌 상	석조지 장보살 좌상 및 시왕상	석조삼 세불좌 상 및 십육나 한상
					석조지 장보살 좌상 및 시왕상				석조지 장보살 좌상 및 시왕상				
제작년도		1670년 7월	1677년 7월	1678년 5월	1678년 6월	1681년 4월	1681년 6월	1683년 6월	1684년 6월	1685년 4월	1686년 윤4월	1688년 4월	1688년 5월
0	勝浩 (勝湖)	★1/5			★1/10	★1/18	★1/8	★1/16	★1/9	★1/32			★1/14
1	尙倫	○2/5	★1/6	★1/10	○2/10	○2/18		○2/16		○2/32	★1/6	★1/3	○2/14
2	慈運	○3/5											
3	應眞	○4/5											

4	卓梅	○5/5											
5	宗鑒		○2/6										
6	双益		○3/6										
7	學淨				○3/10	○3/18							
8	呂岑				○4/10	○7/18	○2/8	○△/16		○3/32			○3/14
9	普仁												○4/14
10	卓文					○4/18							○5/14
11	熙衍												
12	天輝							○△/16	○2/9				
13	玉淨								○3/9				○6/14
14	天擇 (天澤)				○5/10	○5/18	○3/8					○2/3	○7/14
15	宝藏		○4/6			○6/18		○△/16	○4/9	○4/32		○3/3	○10/14
16	定日		○5/6							○24/32			
17	卓獻				○6/10								
18	清眼				○7/10								
19	自白				○8/10								
20	德藏				○9/10								
21	德雲		○6/6		○10/10								

22	法然								○5/9				
23	秀宗 (守宗)								○7/9	○5/32			○8/14
24	竺令					○8/18							○9/14
25	儀英												○11/14
26	禪俊					○9/18							
27	法眼					○10/18							
28	空英							○△/16					
29	慈信							○△/16					
30	惠行							○△/16					
31	印元							○△/16			○3/6		
32	靈遠									○6/32			
33	就旭									○7/32			
34	幸湜							○△/16		○8/32			
35	處屹					○11/18		○△/16	○8/9	○9/32	○2/6		○12/14
36	道信								○9/9				
37	守衍 (守演)					○12/18		○△/16		○10/32			○13/14
38	處行					○13/18		○△/16					

39	義晶							○△/16					
40	義宗					○14/18							
41	法宗					○15/18		○△/16	○6/9				○14/14
42	敏侃					○16/18	○8/8						
43	天龍					○17/18							
44	海發					○18/18							
45	覺訥									○11/32			
46	就謹									○12/32			
47	進明									○13/32			
48	寶海									○14/32			
49	守日									○15/32			
50	性敬									○16/32			
51	學尙									○17/32			
52	幸淨									○18/32			
53	□釋									○19/32			
54	勝玄									○20/32			
55	尙惠									○21/32			
56	斗明									○22/32			

57	處登									○23/32			
58	法能									○25/32			
59	坦悟									○26/32			
60	處旭									○27/32			
61	決宗									○28/32			
62	戒寬									○29/32			
63	忝立									○30/32			
64	成敬									○31/32			
65	萬興									○32/32			
66	就玉										○4/6		
67	道薰										○5/6		
68	能默										○6/6		



圖 19. 道祐, <松林寺 極樂殿 石造阿彌陀佛坐像>, 1655년, 돌, 상 높이 125cm, 무릎 폭 95cm. 칠곡 송림사 배전



圖 20. 道祐, <松林寺 極樂殿 石造地藏菩薩坐像(右)>, 1655년, 돌, 상 높이 103.5cm, 무릎 폭 78cm. 칠곡 송림사 배전



圖 21. 道祐, <松林寺 極樂殿 石造觀音菩薩坐像(左)>, 1655년, 돌, 상 높이 101.5cm, 무릎 폭 75cm. 칠곡 송림사 배전



圖 22. 勝湖, 勝湖, <道詵寺 石造觀音菩薩坐像>, 1670년, 돌, 상 높이 70, 도선사 청담 유물관 소장



圖 23. 勝湖, <德寺 靈山殿 石造釋迦牟尼佛坐像>, 1678년, 돌, 상 높이 92.7 무릎 폭 59, 청도 덕사 영산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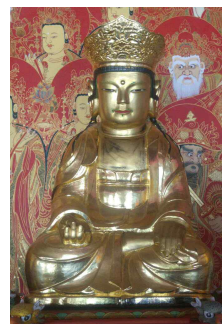


圖 24. 勝湖, <德寺 靈山殿 提和竭羅菩薩坐像(右)>, 1678년, 돌, 상 높이 76.5 무릎 폭 50, 청도 덕사 영산전



圖 25. 勝湖, <德寺 靈山殿 彌勒菩薩坐像 (左)>, 1678년, 돌, 상 높이 82.5 무릎 폭 50, 청도 덕사 영산전



圖 26. 勝湖, <德寺 冥府殿 石造地藏菩薩坐像>, 1678년, 돌, 상 높이 118, 무릎 폭 73.5, 청도 덕사 명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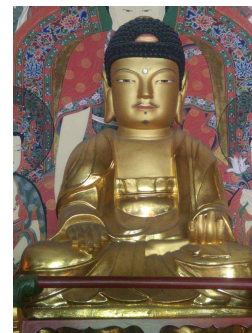


圖 27. 勝湖, <雲門寺 內院庵 石造阿彌陀佛坐像>, 1681년, 돌, 상 높이 87, 무릎 폭 58, 청도 운문사 내원암 극락보전



圖 28. 勝湖, <昌原 聖住寺 石造地藏十王像>, 1681년, 돌, 상 높이 113, 무릎 폭 83, 창원 성주사 지장전



圖 29. 勝湖, <大悲寺 大雄殿 石造釋迦牟尼佛坐像>, 1683년, 돌, 상 높이 116, 무릎 폭 77.2, 청도 대비사 대웅전



圖 30. 勝湖, <長安寺 應眞殿 石造釋迦牟尼佛坐像>, 1684년, 돌, 상 높이 66.3cm, 무릎 폭 53.8cm, 부산 장안사 응진전



圖 31. 勝湖, <長安寺 應眞殿 石造提花羯羅菩薩坐像(右)>, 1684년, 돌, 상 높이 59cm, 무릎 폭 46cm, 부산 장안사 응진전



圖 32. 勝湖, <長安寺 應眞殿 石造彌勒菩薩坐像(左)>, 1684년, 돌, 상 높이 55.5 무릎 폭 45, 부산 장안사 응진전



圖 33. 勝湖, <機張 長安寺 冥府殿 石造地藏菩薩坐像>, 1684년, 돌, 상 높이 102.5cm 무릎 폭 78cm, 부산 장안사 명부전



圖 34. 勝湖, <大典寺 普光殿 石造釋迦牟尼三尊佛坐像>, 1685년, 돌, 상 높이 104cm, 무릎 폭 78cm, 청송 대전사 보광전



圖 35. 勝湖, <大典寺 普光殿 石造普賢菩薩坐像(右)>, 1685년, 돌, 상 높이 78.5cm 무릎 폭 56cm, 청송 대전사 보광전



圖 36. 勝湖, <大典寺 普光殿 石造文殊菩薩坐像(左)>, 1685년, 돌, 상 높이 76cm 무릎 폭 57cm, 청송 대전사 보광전



圖 37. 尙倫, <佛影寺 應眞殿 石造釋迦牟尼佛坐像>, 1677년, 상높이 95 무릎폭 68.5, 울진 불영사 응진전



圖 38. 尙倫, <佛影寺 應眞殿 石造提和竭羅菩薩坐像(右)>, 1677년, 상높이 78.3 무릎폭 52, 울진 불영사 응진전



圖 39. 尙倫, <佛影寺 應眞殿 石造彌勒菩薩坐像(左)> 1677년, 상높이 78.5 무릎폭 54, 울진 불영사 응진전



圖 40. 尙倫, <佛影寺 冥府殿 石造地藏菩薩坐像>, 1688년, 상높이 139 무릎폭 107, 울진 불영사 명부전



圖 41. 尙倫, <金谷寺 石造阿彌陀佛坐像>, 1678년, 돌, 상높이 98.2 무릎폭 59, 1구, 칠곡 금곡사 극락전



圖 42. 尙倫, <持寶寺 大雄殿 石造佛坐像>, 1686년, 상높이 83 무릎폭 58, 군위 지보사 대웅전



圖 43. 尙倫, <持寶寺 大雄殿 石造菩薩坐像>
(右), 1686년, 상높이 69 무릎폭 50.5, 군위 지
보사 대웅전



圖 44. 尙倫, <持寶寺 大雄殿 石造菩薩坐像>
(左), 1686년, 상높이 66.5 무릎폭 50.5, 군위 지
보사 대웅전

대적사 극락전에 봉안된 불상이 승호와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대적사 연혁에서 밝히고 있는 대적사의 중건연대가 1674년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⁹⁸⁾ 도선사의 예를 통해 승호는 1670년대 활동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극락전 중건연대가 1674년이므로 문헌 사료에서 밝히고 있는 세 구의 불상은 승호와가 조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승호 이외에도 17세기 청도에서 활약한 조각승도 존재하지만 대적사 극락전 불상을 비교해보면 형식 및 양식에서 차이를 보인다.⁹⁹⁾

승호와 작품으로 생각되는 두 번째 이유는 대적사 극락전 불상의 재료가 불석이라는 점이다. 청도의 예 이외에도 승호의 불상들은 모두 돌로 만들어졌으며, 그의 제자도 돌로 조각하였다. 그가 조각에 사용한 돌은 경주 불석으로 기림사 인근이 주생산지로 알려져 있다.¹⁰⁰⁾ 승호가 불상을 조각할 때 무슨 연유로 불석을 사용했는지에 대해 명확히 알려진 바는 없다. 하지만 그가 석재를 선택한 이유에 대한 흥미로운 의견이 있다.¹⁰¹⁾ 조선후기에는 승호뿐만 아니라 나흠(懶欽), 경옥(敬玉), 승일(勝一), 녹원(鹿苑), 도우(道祐), 색난(色難), 마일(摩日) 등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다양한 조각승들이 있는데, 이들은 목재수급에 어려움으로 인해 경상도에서 불석으로 조각을 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한다.¹⁰²⁾

98) 「대적사중수기」, 「…道號瑞月堂性海大師之所創也 粵在丙辰春 海大師 始就洞鶴山中 創立是寺 大雄殿 香爐殿 佛像三尊…」

99) 승호 이외에도 17세기 청도에서 활동했던 조각승은 玄眞(현진), 熙莊(희장), 守一(수일) 등이 있다. 하지만 현진과 희장은 대적사 극락전 불상을 봉안했던 시기보다 이전에 활동하였으며, 청도에 남긴 작품도 현진 두 건, 희장 한 건 밖에 되지 않는다. 수일은 대적사 극락전의 불상이 조성됐던 시기와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시점에 조각을 남겼다. 그가 남긴 조각은 적천사 명부전 지장보살상인데, 대적사 극락전의 조각과 비교해보면 그 방법이 확연히 다르다. 따라서, 대적사 극락전 불상의 제작자를 승호 이외의 조각승으로 추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100) 조선후기의 석조불상들은 대부분 불석으로 만들어 졌으며, 그리스어인 'zein lithos'에서 유래하였다. 일본에서는 '沸石'이라고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불상을 만든다는 의미로 '佛石'이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틀린 표현이며 경주 기림사 일대에서 많이 생산되어 경주 불석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희정, 위의 논문, 2008, p. 157.

101) 이희정, 「조선후기 경상도지역 불석제 불상의 등장과 유행」, 『불교미술사학』 14, 2012, pp. 44-55.

102) 불석은 화강암과는 달리 입자가 작고 매끄러워 습기를 빨아들이거나 외부의 물질이 돌의 표면에 잘 달라붙는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표면에 도금을 하는 경우 배접이나 호분처리를 하는 과정이 생략되고 바로 옷을 올릴 수 있다. 실제로 옷칠을 하지 않고 도금한 사례들이 있어 경비질감의 효과가 있으며, 조각은 단단하지만 무게가 가벼워 조각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돌이기 때문에 불에도 강하다. 이희정, 위의 논문, 2008, p. 157.

[표 7] 17세기 중반 이후 경상도지역의 불상재질

번호	지역	년도	불상명	재료
1	양산	1648년	원효함 석조약사여래좌상	석재
2	김천	1648년	직지사 석가모니불좌상	목재
3	구미	1649년	수다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목재
4	청도	1654년	대운암 목조관음보살좌상	목재
5	창원	1655년	성주사 목조 석가모니불좌상	목재
6	창원	1655년	성주사 목조 아미타불좌상	목재
7	창원	1655년	성주사 목조 약사불좌상	목재
8	칠곡	1657년	송림사 목조문수보살좌상	목재
9	칠곡	1657년	송림사 목조보현보살좌상	목재
10	칠곡	1657년	송림사 목조석가모니불좌상	목재
11	부산	1659년	장안사 대웅전 석조석가모니불좌상	석재
12	부산	1659년	장안사 대웅전 석조아미타불좌상	석재
13	부산	1659년	장안사 대웅전 석조약사불좌상	석재
14	부산	1659년	장안사 응진전 석조석가모니불좌상	석재
15	부산	1661년	범어사 목조미륵보살좌상	목재
16	부산	1661년	범어사 목조석가모니불좌상	목재
17	부산	1661년	범어사 목조제화갈라보살좌상	목재
18	칠곡	1665년	송림사 명부전 석조지장아보살좌상	석재
19	칠곡	1665년	송림사 명부전 석조지보살좌상	석재
20	칠곡	1665년	송림사 명부전 석조천장보살좌상	석재
21	김천	1668년	직지사 보살좌상	목재
22	김천	1668년	직지사 비로자나불좌상	목재
23	김천	1670년	고방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목재
24	김천	1670년	고방사 목조대세지보살좌상	목재
25	김천	1670년	고방사 목조아미타불좌상	목재
26	대구	1673년	소재사 석가모니불좌상	석재
27	대구	1673년	소재사 아미타불좌상	석재

28	대구	1673년	소재사 약사불좌상	석재
29	합천	1673년	해인사 지장보살좌상	목재
30	대구	1675년	소재사 목조지장보살좌상	목재
31	울진	1677년	불영사 석조삼세불좌상	석재
32	남해	1678년	용문사 목조지장보살좌상	목재
33	칠곡	1678년	금곡사 석조아미타불좌상	석재
34	청도	1678년	대비사 석조석가모니불좌상	석재
35	청도	1678년	덕사 미륵보살좌상	석재
36	청도	1678년	덕사 석가모니불좌상	석재
37	청도	1678년	덕사 제화갈라보살좌상	석재
38	청도	1678년	덕사 지장보살좌상	석재
39	창원	1681년	성주사 지장보살좌상	석재
40	청도	1683년	운문사 내원암 아미타불좌상	석재
41	통영	1683년	통영 용화사 석조관음보살좌상	석재
42	예천	1684년	용문사 목조대세지보살좌상	목재
43	예천	1684년	용문사 목조아미타불좌상	목재
44	예천	1684년	용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목재
45	부산	1684년	장안사 명부전 석조지장보살좌상	석재
46	부산	1684년	장안사 응진전 석조미륵보살좌상	석재
47	부산	1684년	장안사 응진전 석조제화갈라보살좌상	석재
48	청송	1685년	보광사 석조관음보살좌상	석재
49	청송	1685년	보광사 석조대세지보살좌상	석재
50	청송	1685년	보광사 석조아미타불좌상	석재
51	군위	1686년	지보사 석조아미타불좌상	석재
52	군위	1686년	지보사 석조보살좌상	석재
53	군위	1686년	지보사 석조보살좌상	석재
54	김해	1687년	은하사 목조지장보살좌상	목재
55	울진	1688년	불영사 석조지장보살좌상	석재
56	밀양	1688년	부은사 석조여래좌상	석재

57	김해	1688년	은하사 미륵보살좌상	석재
58	김해	1688년	은하사 석가모니불좌상	석재
59	김해	1688년	은하사 제화가라보살좌상	석재
60	군위	1688년	인각사 관음보살좌상	석재
61	군위	1688년	인각사 대세지보살좌상	석재
62	군위	1688년	인각사 아미타불좌상	석재
63	양산	1688년	포교당 석조관음보살좌상	석재
64	안동	1692년	봉황사 석가모니불좌상	목재
65	안동	1692년	봉황사 석조아미타불좌상	석재
66	안동	1692년	봉황사 석조약사불좌상	석재
67	칠곡	1695년	송림사 극락전 석조관음보살좌상	석재
68	칠곡	1695년	송림사 극락전 석조아미타불좌상	석재
69	칠곡	1695년	송림사 극락전 석조지장보살좌상	석재

실례로 경상도에서는 1649년 양산 통도사 약사전 석조약사불좌상이 처음으로 등장한 이후 1695년까지 69건의 기년작이 있다. 이 가운데 목조불 10건을 제외하고 모두 석재로 만들어 졌다.¹⁰³⁾ 이러한 현상은 국가정책과 연관하여 생각할 수 있다.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목재 수요가 높아졌고, 이는 조각승이 목재 대신 석재를 사용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¹⁰⁴⁾

셋째는 승호와 작품에서 보이는 공통적 특징이 대적사 석조삼존불상에서 보이기 때문이다.¹⁰⁵⁾ 승호와 작품의 특징은 정방형에 가까운 얼굴이지만, 정방형에 비해 폭이 좀 더 넓은 방형이다. 몸과 얼굴을 비교했을 때 얼굴이 크게 나타나고, 하반신을 좁게 조각하여 상반신이 넓어 보인다. 하

103) 승호와 경주 불석이 기림사와 연관이 있다면, 승호는 석재가 손에 익숙하기 때문에 돌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승호는 수련기 때 목재로 조각을 한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보다는 경상도에 지속적으로 내려지는 ‘봉산’등의 정책으로 인해 석재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회정, 위의 논문, 2012, pp. 44-55.

104) 양란 이후 조선에서는 종묘와 창덕궁, 창경궁의 복원 및 인경궁과 경덕궁을 새로 짓는 등 많은 관영건축공사가 진행 되었다. 『萬機要覽』에 의하면 황해도 2곳, 강원도 4곳, 충청도 73곳, 전라도 145곳, 경상도 343곳, 함경도 29곳 등 6도에 총 635곳으로 나타나는데 그중 경상도가 343곳으로 가장 많다. 이권영, 「조선후기 관영건축의 목재와 목공사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00, pp. 13-17.

105) 승호와 계보는 도우-승호, 상륜, 여잠-수일, 수연, 수종-범종으로 이어진다. 최선일, 위의 책, 2011, p. 239.

반신을 좁게 조각했지만, 두껍게 조각하여 안정감을 유지한다. 상반신과 하반신은 길이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하반신이 상반신에 비하여 짧다. 귀의 폭은 넓고 길이는 짧으며, 내곽은 좁지만 길이가 길다. 삼각와는 깊게 패여 짧고 굵게 표현하였다. 대적사 극락전 불상처럼 부견의 아래로 가사가 있는 경우에는 승기지 앞으로 완만하게 삼입된다. 수인은 불상과 보살상의 구별 없이 모두 같은 모양을 하고 있으며, 보살상의 수인은 좌우 대칭으로 나타난다.¹⁰⁶⁾

보살상 컷볼에 표현된 보상화문 귀고리는 도선사 석조관음보살좌상을 제외하고 다른 작품에서는 꾸준히 등장한다.¹⁰⁷⁾ 보살상의 보발은 어깨 쪽에서 한 번 매듭을 짓고 세 갈래로 나뉘어 늘어뜨린다. 승호와 작품 대다수 조각은 하의 자락이 좌우가 똑같이 반전되는 양상을 보인다.

대적사 극락전 삼존불은 승호와 초기 조각과 유사하며, 불상의 하의자락은 도선사 석조관음보살좌상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우협시보살에 조각된 하의가사자락은 1681년 창원 성주사 석조지장보살좌상에서 똑같이 나타난다. 또한 본존불 발목에 보이는 반전된 가사자락은 청도 덕사 대웅전, 덕사 명부전, 부산 기장 장안사, 청송 대전사 등 다양한 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를 통해 대적사 극락전 불상은 승호파가 조각한 것으로 보인다.

3. 단집과 불단

극락전 천장은 격자형으로 된 우물천장이 두 층으로 나뉘어져있다(圖 45).¹⁰⁸⁾ 또한 어칸과 협칸 위치에 따라 천장의 구성 방식에 차이를 두었다.¹⁰⁹⁾ 천장은 하나의 칸마다 모란을 그려 화려하게 장엄하였다.¹¹⁰⁾ 여기

106) 송은석, 위의 논문, 2015, p. 382.

107) 조태건, 위의 논문, 2016, p. 256.

108) 우물 천장은 ‘井’자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천장을 통칭한다. 이 천장은 천장 구성형식 중에서 고급스러운 구조에 속하며, 궁궐이나 사찰에서 주로 보인다. 단집이라는 내부시설물을 추가하여 장엄을 더하며 단절감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층을 나누기도 한다. 정일혁, 「조선시대 사찰건축의 천장형태와 위계성 연구 : 울산, 경남지방을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0, p. 55.

109) 어칸과 협칸의 천장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모두 격자형 우물 천장으로 되어있으나 하단천장의 설치 위치가 다르다. 어칸과 협칸의 상단 천장은 공통적으로 중보와 중도리 장여 사이에 설치되었다. 하지만 어칸 하단천장은 중대공에 걸구된 뜬장여와 내목도리장여 사이에 설치되었으나, 협칸 하단천장은 뜬장여와 가침장여 사이에 설치되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위의 책, 2002, pp. 69-70.

에 그치지 않고, 양쪽 협칸 하단 천장에는 모란의 중심에 글자를 새겨 놓았다. 칠이 벗겨지고 어두웠지만, ‘佛’을 비롯하여 불교와 연관된 여러 글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圖 46).

‘꽃’이라는 장엄요소는 경전에도 다수 등장하며, ‘꽃비’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경전에서 나타나는 꽃은 부처에게 공양하는 공양품으로 등장하며, 꽃비는 부처의神通력을 대변해주는 혹은 어떠한 상황을 극적으로 묘사해주는 장치로 나타난다. 주로 부처가 설법을 하는 장면에서 등장하며, 신비스럽고 환상적인 우화의 상서는 하늘에서 수많은 꽃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리는 현상으로 등장한다.¹¹¹⁾ 이러한 표현은 불자에게 부처가 신성하며 웅장한 느낌을 준다. 경전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圖 45. 대적사 극락전 여칸 천장>



圖 46. <대적사 극락전 오른쪽 협칸 후면 천장>

‘이들은 제각기 부처님의 발에 예배하고 한쪽에 물러나 앉아 있었다. 이 때 세존(世尊)께서는 둘러앉은 사부대중[四衆]으로부터 공양과 공경과 존중과 그리고 찬탄을 받으시면서 여러 보살들을 위하여 대승경을 설하셨으니, 그 이름은 『무량의경(無量義經)』이었다.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께서 보호하고 생각하시는 바였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다 설하신 뒤 결가부좌(結跏趺坐)하시고 무량의처삼매(無量義處三昧)에 드시니, 몸과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그 때 하늘에서는 만다라꽃·마하만다라꽃·만수사꽃·마하만수사꽃을 내려 부처님 위와 대중

110) 모란은 작약이라고도 하며, 『三國遺事』 卷第一 紀異 第一 善德王知幾三事에서 처음 등장한다. 꽃을 시문하는 예는 그리스로마, 인도, 페르시아 등 다양한 곳에서 보이며, 중국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온 것으로 추정한다. 고려불화에서 보이는 모란의 형태는 부처나 보살의 법의문양 혹은 공양화 등으로 표현된다. 조선시대 때는 탕화에 법의문양으로 시문되거나 사찰건축물 내·외에 단청되어 장엄요소로 나타난다. 고승희, 「조선 후기 불교회화와 민화의 모란화 연구」, 『강좌미술사』 41, 2013, pp. 41-42.

111) 부처가 설법을 마치고 삼매에 들었을 때나 정각(正覺)을 얻었을 때,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는 것을 우화서(雨華瑞)라고 한다. 우화서는 법화육서(法華六瑞) 중 하나로 하늘에서 네 종류의 꽃비가 내리는 것을 지칭한다. 허균, 위의 책, 2000, p. 133.

들에게 흠으며, 넓은 부처님의 세계가 여섯 가지로 진동[六種震動]하였다.’

『妙法蓮華經』卷第一 序¹¹²⁾

‘…“묘길상보살이여, 진법(眞法) 중에는 3승(乘)이 없으며, 다만 보리심으로 존장(尊長)을 삼으며, 모든 선법(善法)은 보리심을 따라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살께서 앞에 서서 가신다면 이는 마치 보리심이 한량없는 선법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드디어 묘길상보살이 앞서서 길을 나섰다. 그리고 대보살들이 좌우를 에워쌌으며, 성문의 무리들이 그 뒤를 따라서 본래의 주처(主處)를 떠나 왕사성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이때 하늘에서는 갖가지 꽃비가 내리고 허공에서는 백천 가지 하늘 음악[天樂]을 연주하였으며, 큰 광명을 방출하여 대중들을 비추었는데, 이 광명 속에서 무수한 연꽃 비를 뿌렸다. 왕사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보살이 오는 것을 보고 모두들 기뻐서 각기 향과 꽃들을 가지고 공양하였다.’

『佛說未曾有正法經』卷第四¹¹³⁾

‘…마왕이 다시 미워하고 성내는 힘으로 아수라가 머무르는 곳을 향해서 입으로 독한 기운을 피워 검은 구름을 일으켜서 그들의 성읍과 궁전을 어둡게 함으로써 모든 아수라들을 미혹시켜 다시는 왕래를 할 수 없게 하였다. 그때 부처님은 곧 마왕이 피우는 독한 기운의 구름을 갖가지 하늘의 미묘한 꽃구름으로 변화시켰다. 이때 저 네 아수라의 성읍과 궁전에 다시 갖가지 하늘 꽃의 비를 퍼붓고, 그 하늘 꽃의 빗속에서 백천 가지 미묘한 법문을 연출하였으니…’

『大方等大集經』卷第四十七 月藏分 第十四 魔王波旬詣佛所品 第二¹¹⁴⁾

법당은 부처가 설법하는 장소를 표현한 것이므로, 천장에 그린 모란은 부처가 설법 할 때 하늘에서 많은 꽃이 떨어지는 것을 충실하게 표현한 수단으로 보인다.¹¹⁵⁾

112) ‘…昔如來於耆闍崛山中，與大阿羅漢阿若橋陳如，摩訶迦葉無量等衆，演說大乘眞經，名無量義。是時天雨寶華布濩充滿，慧光現瑞洞燭幽顯，普佛世界六種震動，…’，『妙法蓮華經』卷第一 序。

113) ‘…妙吉祥菩薩！於眞法中無有三乘，但以菩提心而爲尊長，一切善法從菩提心生故。今菩薩前行，猶菩提心生無量善法。於是，妙吉祥菩薩居前而行，諸大菩薩左右圍繞，聲聞之衆皆從其後，離本住處入王舍城。是時天雨衆華，於虛空中奏百千天樂，放大光明普照大衆，於光明中雨衆蓮華。王舍城中一切人民見菩薩已皆生歡喜，持諸香華而伸供養。…’，『佛說未曾有正法經』卷第四。

114) ‘…魔王復以瞋怒之力，向阿修羅所住之方，放口噓氣成黑氣雲，令其城邑宮殿陰闇，使諸阿修羅重復迷惑不能去來。爾時，世尊卽復變其所吹氣雲，令作種種天妙華雲。爾時，於彼四阿修羅城邑宮殿，復雨種種天華之雨，其華雨中演出百千微妙法門，…’，『大方等大集經』卷第四十七 月藏分 第十四 魔王波旬詣佛所品 第二。

115) 허균, 위의 책, 2000, p. 134.

대적사 극락전 천장 장엄은 불화나 단청으로 끝나지 않는다. 어칸 상단 천장에 보면 얼굴을 천장에서 바닥으로 내밀고 있는 두 마리 용이 있고, 그 중간에 화염에 휩싸인 여의주가 길게 매달려 있다.¹¹⁶⁾ 두 마리의 용 가운데 한 마리는 입을 벌리고 있고 다른 한 마리는 입을 다물고 있으며, 용은 화염에 휩싸인 여의주를 향해 날아가듯이 표현하고 있다.¹¹⁷⁾ 천장의 곳곳에는 용의 몸통으로 보이는 부분이 나타나며, 협칸의 상단천장에는 용꼬리가 표현되어 있다.¹¹⁸⁾ 이 모습은 마치 전각의 내부에 용 두 마리가 살아 움직이고 있는 생동감을 준다. 용 머리 좌우에는 연꽃을 조각하여 더욱 화려하게 장엄해 놓았다.¹¹⁹⁾



어칸 하단 후면천장에는 단집이 설치되어 있다(圖 47).¹²⁰⁾ 단집에 대한 내용

圖 47. <대적사 극락전 단집>

- 116) 두 마리의 용이 여의주를 가지고 노는 모습을 쌍룡희주(雙龍戲珠)라고 한다. 이 형상은 천문학에 기원을 두고 있는데 성구운행도(星球運行圖)라 부르며, 구슬의 모습은 달을 표현한 것이다. 쌍룡희주는 한나라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길상희경(吉祥喜慶)을 의미한다. 쌍룡의 모양은 건물장식과 면적에 의해 정해지지만, 용을 표현한 방법과는 상관없이 구슬은 항상 중앙에 위치한다. 이장혁, 「불교경전에 나타난 용의 상징성 연구」, 위덕대학교 불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8, p. 31.
- 117) 여의주가 용의 지물이라는 것은 경전을 통해 알 수 있다. 『大方便佛報恩經』 卷第四에서는 마니보주는 용안의 귀안에 있으며 일체 중생이 소원을 들어주어 여의보주라 이름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곧 보주가 여의주이며, 용의 귀안에 있다는 점을 통해 용의 지물임을 알 수 있다. 용왕이 중생에게 보주를 주었다는 내용을 『佛說海龍王經』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生經』 第卷一과 『治禪病秘要法』 第卷一을 통해 용왕의 머리에 여의주가 있다고 말한다. 『法苑珠林』 卷第十八에는 지도론과 화염경에 기록된 보주를 설명하면서 보주가 용의 지물임을 밝히고 있다. 금은영, 「寶珠의 圖像과 象徵」, 이화여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3, pp. 56-59.
- 118) 봉화 축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의 천개에는 한 마리의 용이 불상의 정수리를 향해 머리를 아래로 힘껏 내밀고 있다. 1730년에 제작한 목조광배 뒷면의 명문을 통해 천개안의 용을 ‘盤龍’이라 불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임영애, 「봉화 축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과 목조광배 : 축서사와 왕경 진골 귀족, 그리고 황룡사」, 『이화사학연구』 55, 2017, pp. 48-50.
- 119) 어칸 천장에 장엄을 더하는 건물은 정혜사 대웅전이 있다. 정혜사는 우물반자와 경사천장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고 울물반자의 경우 소란반자를 사용하고 있다. 반자들이 교차하는 곳에는 물고기, 말, 개, 거북이 등을 형상화한 부채를 사용했다. 불단상부에 있는 경사천장에는 용두가 돌출되어 있으며, 단집에는 용두, 극락조, 구름무늬 장식판으로 장식하고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위의 책, 2002, p. 70.
- 120) 단집은 회화·건축·조각 등 모든 불교미술에 나타나며 화려하게 장엄된 덮개를 의미한다. 唐家, 天蓋, 寶蓋 등 다양하게 불리는데, 산스크리트어로 ‘Chatra’로 불린다. 단집의 시원은 산개에서 찾는데, 노천의 부처님을 풍우나 햇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산

은 경전에서 찾을 수 있는데 주로 ‘불상을 장엄하기 위한 수단’으로 묘사하고 있다.¹²¹⁾ 우리나라에서 단집이 성행하게 된 계기는 임진왜란 이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조선초기에도 단집은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한다.¹²²⁾ 극락전 단집은 정면 1칸, 측면 1칸으로 되어있으며, 허주가 있는 운궁형 단집으로 분류할 수 있다.¹²³⁾ 단집은 불단 전체를 덮을 정도로 크게 설치하는 것이 보편적인 형태이다. 하지만 극락전에 설치된 단집은 크기가 작고 건물전체 의장에 비해 간략해서서 후대에 설치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¹²⁴⁾ 단집내부에는 별도의 천장시설을 하지 않고 천장의 우물반자 형식을 따랐는데, 3단의 소란을 둘러 장식하였다. 우물 두 칸에는 용문양을 단청하여 장엄하였다.¹²⁵⁾

단집 아래에는 팔각형 삼단대좌 세 기를 조성했는데, 두 단으로 구성된 불단 위에 있다. 본존불 대좌가 협시보살을 받치고 있는 대좌보다 약간 크게 조성되어 있는데, 이는 본존불이 협시보살보다 더 크기 때문에 대좌도 상에 맞춰서 크게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대좌 하단은 돌을새김으로

개를 사용하였다. 스투파에 장식되는 산개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이 가능하며, 불교미술이 나오기 전에는 보리수와 함께 부처의 상징물로 표현되었다. 고대 인도의 傘蓋의 변형이라고 생각한다. 신지용, 「단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2, pp. 5-6.

121) 『金剛經註釋』에는 “가지가지 장엄된 상륜과 산개를 놓고 그 안에 불상이나 불사리를 봉안한다.”라고 적혀 있으며, 『佛說繡閣正法甘露鼓經』에는 스투파를 설명하면서 “위에는 상륜을 놓는데 그 크기는 바늘 같다. 그 위에 산개를 얹는데 그 형태는 대추잎에서 유래한다.”라고 적고 있다. 『佛說未曾有經』에도 이와 비슷한 말이 있으며, 『佛說浴像功德經』에는 부평초 모양이라 설명을 하지만 모두 산개를 언급하고 있다. 심대섭·심대현, 위의 책, 2010, pp. 27-28.

122) 그 예로 안동 봉정사 대웅전이나 강진 무위사 극락전에 단집의 형태가 남아있고, 이들의 양식은 조선후기 장곡사 하대웅전, 봉암사 극락전 등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임진왜란으로 인해 소실된 사찰이 많기 때문에 조선후기에 나타나는 다양한 단집의 원형을 추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강근, 위의 논문, 1994, p. 44.

123) 단집은 상부의 구성형식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 보개형은 천장에 방판을 짜고 내부에 포를 구성하여 천판을 덮은 것을 말하고 두 번째 유형의 단집은 운궁형 단집이다. 이 단집은 운궁입식판이나 판재로 간단하게 처리한 형태이며, 허주(虛柱)의 유무에 따라 다시 세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불전형이 있는데, 세 개의 단집 중 제일 화려하다. 그렇기 때문에 장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장 많이 표출했으며, 평면 형태에 따라서 다시 일자형·정자형·아자형·중아자형으로 나뉘며 당주(唐柱)의 유무에 따라 세분된다. 신지용, 위의 논문, 1992, pp. 17-18.

124) 국립문화재연구소, 위의 책, 2002, pp. 75-79.

125) 불전형 단집을 약식화한 운궁형 단집을 사용한 건물은 개모가 원통전, 송광사 국사전, 은해사 백흥암 극락전, 환성사 대웅전, 천은사 극락보전, 금암사 극락전, 대흥사 대웅보전 등이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위의 책, 2002, p. 75.

꾸뚝으며, 상하에 네 개의 단으로 구성된 받침재를 물려쌓아 치장하고 있다. 받침재 끝부분에는 꽃이 투각된 판재를 놓아 상단, 중단, 하단을 구분하고 있다. 본존불과 우협시보살의 대좌에는 난간이 둘러져 있는데, 이것을 미루어보아 좌협시보살의 대좌에도 난간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상단에는 난간을 꽃은 것을 보이는 구멍이 있다. 난간 사이에는 안상을 뚫은 착고판을 설치하였고, 대좌 위에는 양련과 복련을 표현한 좌대가 있다.¹²⁶⁾

대좌를 받치고 있는 불단은 불전에서 불상을 봉안하고, 공양물을 올리는 역할을 한다.¹²⁷⁾ 불단이 등장하는 시기는 고려 후기부터 나타나며, 조선후기에는 일반화 되었다.¹²⁸⁾ 특히, 불단은 임진왜란 이후 사회적인 역할과 민중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예배 기능이 강화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불단이 가지는 의미는 자연스럽게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

그 예로 조선후기에 지어진 사찰은 전기사찰에 비해 전각 내 불단 비율이 상승했으며, 불단의 점유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전각 내부 공간을 확보해야만 했다.¹²⁹⁾ 이는 곧 불전의 평면구성이 바뀌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¹³⁰⁾ 대적사도 이러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전각 내 불단 점유율이 10% 정도로 나타나며, 불단 위치도 건물의 배면으로 옮긴 것으로 생각된다.

126) 국립문화재연구소, 위의 책, 2002, p. 74.

127) 불단은 불탁, 수미단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왔으며, 불상을 봉안하는 기능에 불전을 장엄하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불단은 전각의 신성하고 웅장할 뿐만 아니라 엄숙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장엄구이다. 허상호, 『朝鮮 後期 佛卓 연구』, 『미술사학연구』 244, 2004, p. 121.

128) 15세기에 만들어 졌을 것으로 추정하는 강진 무위사 극락전의 불단은 조선후기의 불단의 특징이 그대로 담겨 있다. 임진왜란으로 인해 무위사와 같은 형태의 불단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17세기에 재건된 불전들에서 완전한 기능을 갖춘 불단이 등장하는 것을 통해 16세기에도 어느 정도 존재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송은석, 위의 논문, 2009, pp. 75-76.

129) 불단이 가지는 의미가 확대되었다는 것은 전각 내에서 불단 점유비율을 통해 알 수 있다. 17세기에 조성된 사찰의 불단과 17세기 무위사 극락전의 불단 비율을 비교해 본 연구가 있는데, 무위사 극락전의 비율이 7%인데 반해, 17세기에는 점점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7세기 전반에 지어진 완주 화암사 극락전 불단이 13%, 1612년에 제작된 진주 청곡사 대웅전 불단이 9%, 1621년에 지어진 전등사 대웅전 불단이 17%, 화암사 대웅전 불단이 21%등 시간이 지날수록 전각 내에서 불단 점유비는 상승하였다. 또한 전체평균은 11%늘어났으며 17세기 후반에는 개암사 대웅전 불단이 18%, 범어사 대웅전 불단이 24% 등으로 전체평균이 16% 늘어났다. 송은석, 위의 논문, 2009, p. 76.

130) 앞의 각주 37번 참조.

대적사 극락전 불단은 후면 어칸 기둥에 기대어있다. 불단은 하대, 중대, 상대로 구성되지만, 극락전 불단은 하대가 없다. 전면 양쪽에 기둥을 세우고, 세 개의 가로 중대목을 사용하여 불단 전면을 상하 두 개의 단으로 나누었다. 청판을 사용하여 단 사이를 막은 뒤, 단청으로 마무리를 하였다. 흥미롭게도 불단에는 특별한 조각이 없다. 통상 불단에는 동물, 식물, 인물 등 다양한 문양으로 장식 되어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¹³¹⁾ 불단은 수미단이라고도 하는데, 이를 통해 불단이 수미산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불단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¹³²⁾ 하지만 대적사 극락전과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영천 백흥암 극락전의 불단과 비교하면 대적사의 불단은 장엄적인 요소가 떨어진다.¹³³⁾ 또한, 극락전 내부에 있는 다른 장엄 요소와 비교를 해보아도 그 화려함이 부족하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대적사 불단은 전각보다 후대에 만들어진 것으론 보인다.¹³⁴⁾

131) 동물문에는 사자·잉어·거북과 같이 실존하는 동물을 비롯하여 용·봉황·기린·마갈어와 같은 상상의 동물도 포함된다. 식물문에는 모란·연꽃·국화가 대표적이며 장식문으로는 운문, 금강저 등이 있다. 정귀선, 조선후기 불단 연구-경상도지역 장엄불단을 중심으로-, 경주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17, pp. 27-29.

132) 임영애, 「곤륜산, 수미산, 그리고 삼단팔각 연화대좌-중국 삼단팔각 연화대좌에 담긴 상징-」, 『강좌미술사』 34, 2010, pp. 14-18.

133) 영천 백흥암 극락전 불단에는 불교적인 도상, 도교적인 도상, 유교적인 도상이 어우러져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 정귀선, 「은혜사 백흥암 극락전 불단의 문양연구」, 경주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2, pp. 56-87.

134) 국립문화재연구소, 위의 책, 2002, p. 72.

IV. 대적사 극락전 불교미술의 의미

대적사 극락전은 기록을 통해 18세기 건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기단은 17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소맷돌에 새겨진 용이 다른 작품에서 보이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극락전의 규모는 작지만, 조선후기 사찰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다. 첫 번째로 대적사 극락전에 사용된 건축부재를 다시 사용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전각을 살펴보면, 곳곳에서 부재를 다시 사용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는 계단 왼쪽에 혼자 서 있는 법수석이다. 법수석 위쪽 면을 보면 깨진 흔적이 남아있다. 거북이가 새겨진 면의 반대쪽과 왼쪽을 보게 되면 더 확실히 알 수 있다. 거북이가 새겨진 면은 깔끔하게 치석된 반면, 왼쪽과 뒷쪽은 울퉁불퉁하다. 이를 통해 법수석을 세우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깨져있던 부재를 세운 것으로 보인다. 부재의 재사용은 법수석 이외에도 계단 디딤돌의 크기, 계단면석에 새긴 구름모양과 땃돌 접합부분, 다른 돌을 사용하여 기단면석을 받친 점 등 여러 가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단에서 보이는 소성된 흔적과 황토색 기와편이 다량발견된 점은 건물이 소실된 흔적이다. 또한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건물을 세울 때, 그 부분을 제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보아 대적사 이전에 건물이 있었고, 소실된 이후 그 자리에 전각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평면구성을 보면 건물 내부에 기둥이 없다. 이것은 조선후기 시대상을 볼 수 있는 흔적으로 크기가 큰 사찰은 내진주를 측면 뒷면 벽체와 측면 주열 사이에 두고 후불벽을 구성한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후기 사찰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특징으로 임진왜란 이후 불교사 대중적인 성격을 가지면서 발생한다.¹³⁵⁾ 즉, 조선후기에 법회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불단의 면적이 넓어졌고 그로인해 불전내부공간이 줄어들었다. 따라서 공간을 확보하

135) 전각을 비롯한 실내에서의 의식과 법회가 늘어나고 일반 신도들이 그러한 불사에 많이 참가하게 되었다. 사찰입장에서도 사찰의 유지를 위하여 일반 백성을 시주자로 잡아야할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다양한 법회가 자주 열릴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다. 송은석, 「조선 후기 불교조각의 독창성」, 『미술사학』 28, 2014, pp. 323-324.

기 위해 이주법이 나타나게 됐고, 대적사는 불단이 후면 벽체에 붙게 된 것이다.

대적사 극락전 계단의 오른쪽면석에는 「용비어천도」라고 알려진 조각이 있다. 「용비어천도」와 『용비어천가』의 내용을 비교하기 위해 현재 전해지는 「용비어천도」가 있는지 찾아보았지만, 현존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무런 검증 없이 「용비어천도」로 불리는 것을 확인하였다. 남아있는 그림이 없기 때문에 『용비어천가』에서 용이 나오는 구절을 찾아보았다. 『용비어천가』는 총 12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용이 등장하는 장은 서장을 포함해 총 여섯 장이 있었다. 하지만 면석에 조각되어 있는 도상과 일치하는 장은 없었다. 따라서 면석 조각을 「용비어천도」로 보기에 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면석에 등장하는 거북이, 연꽃, 수련 등을 통해 불교적인 의미로 해석 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감로군다리보살 공양염송성취의계』에서 면석에 새긴 조각과 도상이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어서 둘째는 계단면석에 거북이와 용이 함께 등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고찰을 해보았다. 거북이는 경전에서 다양한 의미로 등장하는데, 위험에서 도와주거나 깨달음을 얻는 매개체 혹은 이상향으로 가는 것을 도와주는 존재로 표현했다. 이러한 내용은 『경률이상』, 『광홍명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이상향으로 가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은 불전설화인 ‘토끼와 거북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토끼와 거북이’는 인도에서 전해지던 설화가 불교로 유입됐고, 중국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추정되며, 『삼국사기』에서 ‘귀토지설’로 등장하였다.

특히 거북이가 토끼를 용궁으로 데려가기 위해 감언이설을 하는 장면에 주목하였는데, 거북이는 용궁을 위험이 없고 편안한 곳이라고 강조하며 토끼를 끌어낸다. 이후, 거북이는 토끼를 등에 태우고 용궁으로 간다. 이 장면은 거북이가 이상향으로 가는 탈 것으로 묘사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거북이가 용과 더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계단 오른쪽면석에 새겨진 조각은 「용비어천도」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호법을 상징하는 용과 함께 불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북이를 소맷돌에 표현한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는 불전 내부를 장엄하고 있는 요소를 살펴보았다. 극락전 내부에는 보살과 비천을 비롯하여 독성도, 고사인물도 등 다양한 주제들이 벽면

을 장식하고 있다. 불상 뒤편에는 아미타삼존도가 있으며 불단의 오른쪽에는 20세기에 제작한 칠성도가 있다. 극락전의 천장은 격자형으로 칸마다 꽃을 그려 장엄하였다. 천장을 꽃으로 장엄한 이유는 『묘법연화경』, 『불설미증유정법경』, 『대방등대집경』 등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부처가 설법을 할 때 꽃비가 내린다는 표현을 하는데, 전각은 부처가 설법을 하는 장소이므로, 경전에서 보이는 모습을 천장에 꽃으로 장식하여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전각의 화려한 장엄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어칸 상단에는 여의주를 가지고 노는 용을 장식하였고, 어칸 후면 하단에는 단집이 있다. 부처를 받치고 있는 좌대에도 돌을새김을 하거나 꽃이 투각된 판자를 넣는 등 세세하게 장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는 기단부조를 전각과 연관 지어 기단에 새겨진 해양생물이 가지는 의미를 고찰하였다. 고찰하기에 앞서 전각이 어떤 연유로 반야용선으로 불리는지 살펴보았다. 극락전처럼 어칸 주두 끝에 용두장식이 되어 있는 전각을 반야용선으로 본다. 이런 사상은 『금강경』에 나오는 내용으로 인한 것이지만, 경전에는 반야용선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금강경』 뿐만 아니라 뗏목이 등장하는 『광홍명집』, 『금강정유가중 발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론』, 『대방등대집경』 등 다양한 경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경전에 뗏목이 나오는 이유는 ‘배’에 비유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극락은 배를 타고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극락전 기단에 있는 해양생물은 전각이 가지는 의미를 더욱 강조한다. 물에 사는 생물을 전각의 기단에 새김으로서, 물을 건너 피안의 세계로 가는 배를 표현한 것이다. 기단에 해양생물이 등장하는 사찰은 여수 흥국사, 해남 미황사, 순천 정혜사 등이 있으며, 모두 해안에 인접해 있는 사찰이다. 이를 통해 기단에 해양생물이 나타나는 것은 해안에 위치한 사찰의 지역적인 특색이며, 대적사는 독특한 경우로 분류했다. 하지만 기단조각이 반야용선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한다면, 내륙에 위치한 대적사 극락전 기단도 설명이 가능하다. 따라서 해양생물이 기단에 조각되어 있는 것은 지역적인 특색이 아니라 전각이 반야용선임을 강조하는 장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지막 다섯째는 극락전에 봉안되어 있는 불상을 승호파 작품으로 추정하였다. 이에 대한 첫 번째 근거는 승호파가 활동했던 시기와 대적사 극락전이 중건된 시기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승호파는 17세기 경상도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유파인데, 『대적사중수기』에는 1675년 성해대사가 사찰을 세우면서 불상 세 구를 안치했다고 밝히고 있다. 중수기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찰은 17세기 후반에 지어졌고, 승호파의 활동시기와 일치한다. 따라서 시기상으로 볼 때 승호파가 극락전 불상을 조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근거는 봉안된 불상의 재질이 돌이라는 점이다. 승호파 수장인 승호는 1670년 도선사 석조관음보살좌상을 시작으로 8건 16점을 조각하였다. 모두 석재를 사용하여 불상을 제작하였고, 승호파의 핵심인물인 상륜도 석재를 이용하여 4건 8점을 남겼다. 승호파가 아닌 조각승 가운데 수일이 청도 적천사 명부전 석조지장보살좌상을 돌로 제작하였다. 하지만 대적사 극락전 석조삼존불상과 양식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적사의 예를 수일이 제작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세 번째 근거는 승호파가 조각한 것으로 알려진 다른 불상들과 양식적 유사성을 근거로 들 수 있다. 얼굴의 형태나 신체비례 등 승호의 작품으로 유추할 수 있는 특징 들이 많이 있다. 그 가운데 ‘U’자형의 옷주름, 승기지 앞으로 완만하게 삽입되는 부견의 자락, 반전되는 하반신 가사자락, 어깨에서 세 갈래로 갈라지는 보발, 좌협시 보살의 왼쪽 귀에 있는 꽃모양 귀고리 등은 승호파 작품임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이다.

조선후기에 화려한 장엄이 나타나게 된 배경은 사찰을 불국토로 표현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달래주고 예불을 통해 정신적인 위안을 주는 것이 당시 불교계의 역할이었다. 즉, 사찰을 찾아온 백성들에게 경전에서만 전해지는 불국토를 극적으로 보여줄 필요성이 있었고 이것이 화려한 장엄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¹³⁶⁾ 대적사 극락전 또한 이러한 시대상을 가감 없이 표현하고 있다. 전각을 반야용선으로 표현한 점과 기단부에 해양생물을 조각하여 반야용선을 강조한 점, 계단면석에 경전 내용을 새긴 것, 우물천장을 비롯하여 전각 내부를 화려하게 장식한 점 등 조선후기 장엄을 강조하는 사찰 모습이 잘 남아있어 그 의미가 크다.

136) 이강근, 위의 논문, 1994, p.20.

V. 맺음말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첫째는 청도 대적사 극락전 계단면석에 새겨진 「용비어천도」가 맞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둘째는 내륙에 위치하고 있는 극락전 기단에서 해양생물이 등장하게 된 이유를 추론해보았다. 마지막으로 대적사 불전장엄을 살펴보고 전각 내에 봉안되어 있는 삼존불을 누가 조각했는지 제작자를 추정해 보았다.

대적사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자료는 「대적사중수기」, 「보광전상량문」 등이 있었다. 「대적사중수기」와 「보광전상량문」을 통해 1674년에 성해대사가 중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후 80여년 뒤인 1755년에 체징이 중수했다. 이를 통해 기단은 17세기에 만들어졌고, 전각은 18세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기단은 용 도상을 근거로 17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대적사중수기」와 「보광전상량문」과 더불어 건물 뒤편 지붕에 있는 명문 기와 두 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근거로 「경상좌도대구도호부북팔공산동화사대웅전중창상량문병서」와 「팔공산동화사봉서루상량문」가 있다. 이 두 문서에 나오는 승장을 통해서 18세기에 전각이 중수됐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후의 기록은 간략하게 나타나거나 토지 등을 조사하면서 남겨져 있는 기록이며, 일제강점기 때 극락전을 중수한 기록인 「대적사극락전중수부방합기」에 처음으로 ‘극락전’이라는 명칭이 보인다.

대적사 전각은 3x2칸의 다포계 맞배지붕이며, 기단은 가구식으로 되어 있는 반면, 측면은 가구식기단이 중간쯤 나타나다가 자연석기단으로 바뀌며, 배면은 자연석으로 조성되어있다.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적사 극락전을 보면, 범수석을 포함하여 기단면석 등 많은 곳에서 부재를 다시 사용한 흔적이 발견된다. 평면 구조상으로는 불단이 전각 후면에 붙는 것으로 실내 예배공간을 넓게 조성하였다. 계단 오른쪽면석에 새겨진 부조를 이해하기 위해 『용비어천가』를 찾아보았다. 그 결과 계단부조와 「용비어천도」는 연관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불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용과 거북이, 연꽃 등을 면석에 조각한 것을 보았다.

기단에 있는 해양생물은 전각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더욱 강조하는 장치로 보인다. 전각은 금강경을 비롯하여 여러 경전을 통해 반야용선으로

추정한다. 특히, 반야용선도를 통해 어칸 기둥 끝에 있는 용두는 배의 선두를 의미하며, 전각은 반야용선 중심에 있는 선실로 추론 할 수 있다.

전각내부에는 불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림으로 장엄하였다. 더 나아가 우물천장에는 꽃을 그리는 것으로 부처가 설법하는 장면을 묘사하였다. 어칸 상단에는 여의주를 가지고 놀고 있는 용 두 마리를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고, 불상 위에는 단집을 두어 화려함을 더하며, 불상은 높은 불단 위에 어깨가 굽은 상태로 아래쪽을 내려다보고 있다.

극락전에 봉안된 불상은 세 가지를 근거로 승호파 조각으로 추정하였다. 첫째는 덕사 석조석가삼존불좌상과 비교 조각한 세 가지를 근거로 승호파가 조각 불상 조성시기와 재질을 통해 승호파가 불상을 조성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렇듯 청도 대적사 극락전은 조선후기 전각 특징을 고스란히 보여주며, 경전의 내용을 충실히 표현하였다. 또한 대적사를 화려하게 꾸미고 있는 장엄을 통해서 조선후기에 등장하는 사찰 변화양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적사 극락전 불상이 승호파 작품이라면, 승호파 기년 작 가운데 시기가 빠른 작품이다. 1674년에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대적사 석조삼존불상은 1670년 도선사 석조관음보살 이후 가장 빠른 예에 속하며, 1677년 승호파 상륜이 조각한 울진 불영사 석조삼세불좌상보다 3년 빠르다. 따라서 대적사 극락전 작품은 승호파 초기 불상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조선후기에 들어서면 이전 시기와는 다르게 장엄물을 이용하여 전각을 화려하게 장식하여 불국토를 표현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청도 대적사 극락전은 17세기 만들어진 불전으로, 이러한 변화양상을 잘 보여준다. 아울러 극락전 기단의 각종 조각은 그 유례가 드물어 미술사적으로도 그 가치가 높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용비어천도」로 알려진 기단조각은 『용비어천가』에서 보이는 내용과 다르다. 「용비어천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경전에 나오는 내용을 면석에 표현했다고 생각한다. 해양생물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바다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대적사는 내륙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수 흥국사, 해남 미황사, 순천 정혜사 등 여러 사찰과 입지조건에서 차이가 있다. 즉, 기단에 보이는 해양생물은 사찰입지와 상관없이 전각이 반야용선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극락전 석조삼존불은 세 가지의 근거를 통해 승호파 조각으로 추정했다. 첫 번째 근거는 승호파가 활동했던 시기와 대적사 극락전이 창건시기가 일치하는 점, 두 번째 근거는 봉안된 불상의 재질이 석재라는 점, 세 번째 근거는 승호파가 조각한 것으로 알려진 다른 불상과 양식적 유사성을 근거로 들 수 있다. 이곳 청도지역에는 승호파가 제작한 불상이 특히 많은데, 대적사 극락전의 불상 역시 그 가운데 하나로 승호파 계보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청도 대적사 극락전은 조선후기 건축물에서 보이는 형태가 잘 남아 있다. 또한 장엄을 화려하게 하는 것으로 사찰을 불국토로 표현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도 조선후기에서 보이며, 불상도 17세기에 활동한 승호파 양식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적사 극락전은 조선후기 사찰 모습이 잘 남아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찰이다.

<참고문헌>

1. 사적 및 기초자료

『高麗史』

『三國遺事』

『世祖實錄』

『宣祖實錄』

『대적사증수기』

『大寂寺極樂殿重修附芳啣記』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사찰현황』, 2016.

청도군, 『淸道郡誌』, 구일출판사, 1991.

韓國文獻研究所, 『雲門寺誌』, 亞細亞文化史, 1977.

아세아문화사, 『雲門寺誌』, 1977.

2. 사전·도록·보고서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의 고건축』 24, 2002.

문화재관리국, 『87년 문화재 수리 보고서』, 1989.

문화재청, 『文化財大觀』 보물편·木造 改訂版, 2004.

문화재청·(재)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찰문화재-경상남도 I』1, 2009.

문화재청·(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문화유산발굴조사단, 『한국의 사찰 문화재-경상북도 I』2, 2007.

문화재청·(재)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찰문화재-경상북도 II』2, 2008.

문화재청·(재)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찰문화재-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II』2, 2009.

文化財廳·淸道郡, 『大寂寺 極樂殿 修理報告書』, 2005.

삼한문화재연구원, 『청도 풍각-화양간 국도건설공사구간 내 청도 신당리·칠성리·서상리 유적』, 2014.

성보문화재연구원, 『韓國의 佛畫 2 通度寺 本寺篇(中)』, 1996.

(재)불교문화재연구소, 『삼각산 도선사』, 2015.

3. 단행본

- 김왕직,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 동녘, 2007.
박설산·이고운, 『명산고찰따라 속2』, 운주사, 1994.
송은석, 『조선 후기 불교조각사』, 사회평론, 2012.
심대섭·심대현, 『달집』, (재)대한불교진흥원, 2010.
정병모, 「무명화가들의 반란, 민화」, 다할미디어, 1999.
최선일, 『조선후기 조각승과 불상연구』, 경인문화사, 2011.
허균, 『사찰 장식 그 빛나는 상징의 세계』, 돌베개, 2000.
허상호, 『수미단』, (재)대한불교진흥원, 2010.

4. 학술지

- 고승희, 「조선후기 불교회화와 민화의 모란화 연구」, 『강좌미술사』 41, 2013, pp. 39-58.
김승우, 「『용비어천도(龍飛御天圖)』에 대한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1, 2008, pp. 145-175.
김지연, 「朝鮮後期 般若龍船圖 研究」, 『미술사학연구』 281, 2004, pp. 97-133.
문명대, 「송림사 극락전 석 아미타삼존불상의 연구」, 『강좌미술사』, 27,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6, pp. 25-41.
송은석, 「蔚珍 佛瑩寺의 佛像과 彫刻僧: 尙倫, 卓密」, 『동악미술사학회』 17, 2015, pp. 371-406.
송은석, 「조선 후기 불교조각의 독창성」, 『미술사학』 28, 2014, pp. 313-348.
송은석, 「조선 후기 佛殿 내 儀式의 성행과 佛像의 造形性」, 『미술사학연구』 263, 2009, pp. 71-97.
申大鉉, 「『山中日記』를 통한 17세기 佛教文化 考察」, 『문화사학』 45, 한국문화사학회, 2016, pp. 97-122.
양상현, 「사찰 佛殿 莊嚴의 상징 연구」, 『역사민속학』 19, 2004, pp.

305-336.

오세덕, 「운문사의 유물과 기록을 통해 본 가람의 변화상」, 『운문사의 역사와 문화』, 2016, pp. 28-43.

오세덕, 「울진 불영사(佛影寺) 대웅보전(大雄寶殿)의 특징(特徵)과 건축술(建築術)」, 문화재 47, 2014, pp. 46-65.

李彦珠, 「朝鮮後期 佛殿莊嚴의 象徵性에 관한 研究」, 『佛敎大學院 論叢』 6, 1999,

이종수, 「왜란과 호란 이후 불교계의 변동과 추이」, 『한국불교사연구』 8, 한국불교사연구소, 2015, pp. 210-239.

이희정, 「조선후기 경상도지역 佛石製 佛像의 등장과 유행」, 『불교미술사학』 14, 2012, pp. 35-70.

임기영, 「청도의 전적 인쇄 문화 연구」, 『서지학연구』 50, 2001, pp. 113-160.

임영애, 「봉화 축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과 목조광배 : 축서사와 왕경 진골 귀족, 그리고 황룡사」, 『이화사학연구』 55, 2017, pp. 41-75.

임영애, 「곤륜산, 수미산, 그리고 삼단팔각 연화대좌-중국 삼단팔각 연화대좌에 담긴 상징-」, 『강좌미술사』 34, 2010, pp. 9-32.

정다함, 「『龍飛御天歌(용비어천가)』에 나타난 易姓革命(역성혁명)의 구체적 서사와 그 함의」, 『조선시대사학보』 72, 2015, pp. 7-55.

조태건, 「도선사 관음보살좌상을 통해 본 18세기 서울지역으로의 불상 이운 배경:북한산성 승영사찰 개창을 중심으로」, 『불교미술사학』 22, 2015, pp. 253-277.

최연식, 이승규,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와 조선 건국의 정당화」, 『한국정치사상사』 7(1), 2008, p.249-268.

허상호, 「朝鮮 後期 佛卓 연구」, 『미술사학연구』 244, 2004. pp. 121-170.

5. 학위논문

고승희, 「조선후기 불교회화와 민화의 모란화 연구」, 『강좌미술사』 41, 2013.

구사회, 「한국악장문학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92.

금은영, 「寶珠의 圖像과 象徵」, 이화여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3.

- 김소담, 「朝鮮 後期 江原道 地域 佛像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7.
- 김승우, 「『龍飛御天歌』의 成立과 受容·變轉 양상」,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10.
- 김준영, 「조선후기 다포계 주불전 살미의 특징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4.
- 김현정, 「조선후기 사찰건축의 용신앙 의장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1.
- 김홍주, 「18세기 寺刹 佛殿의 건축적 특성」,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1.
- 김희진, 「朝鮮後期 龍 圖像 研究-회화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8.
- 배경남, 「조선시대 측면 2칸형 다포계 불전의 건축특성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6.
- 손성필, 「16·17세기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동향」,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13.
- 신지용, 「단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2.
- 양윤식, 「朝鮮 中期 多包系 建築의 栱包 意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00.
- 이강근, 「17世紀 佛殿의 莊嚴에 관한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94.
- 이권영, 「조선후기 관영건축의 목재와 목공사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00.
- 이장혁, 「불교경전에 나타난 용의 상징성 연구」, 위덕대학교 불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8.
- 이진용, 「朝鮮朝 龍 紋樣의 造形性 研究 -朝鮮 白磁을 中心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2.
- 정귀선, 「은해사 백홍암 극락전 불단의 문양연구」, 경주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2.
- 정일혁, 「조선시대 사찰건축의 천장형태와 위계성 연구 : 울산, 경남지방을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0.
- 정수희, 「朝鮮後期 寺刹建築의 栱包儀裝 研究:17,18세기 다포계 건축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9.

〈도판 목록〉

- 圖 1. <‘87 대적사 극락전 배치도>, 문화재관리국, 『87년 문화재 수리 보고서』, 1989, p. 744
- 圖 2. <‘00년 대적사 극락전 배치>, 국립문화재연구소, 『韓國의 古建築』 24, 2002, p. 22
- 圖 3. <대적사중수기>, 나무, 1675년, 26x79 , 대적사 극락전(차정훈)
- 圖 4. <영좌청도군북○학산대적사보광전상량문>, 종이, 1772 추정, 66x69.3, 65.8x69.7, 2매, 주지실(문화재청·(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문화유산발굴조사단, 『한국의 사찰문화재-경상북도 I』2, 2007, p. 384)
- 圖 5. <‘康熙二十九年’명 기와>, 1690년, 1 점, 『韓國의 古建築』 24, 2002, p. 9
- 圖 6. <‘乾隆十九年’명 기와>, 1754년, 1 점, 『韓國의 古建築』 24, 2002, p. 9
- 圖 7. <대적사극락전중수기부방함기>, 1939년, 나무, 20.5x194, 1점, 청도 대적사 극락전(문화재청·(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문화유산발굴조사단, 『한국의 사찰문화재-경상북도 I』2, 2007, p. 385)
- 圖 8. <대적사 극락전 전경>(차정훈)
- 圖 9. <대적사 평면도> (국립문화재연구소, 『韓國의 古建築』 24, 2002, p. 126)
- 圖 10. <대적사 왼쪽 계단 면석>(차정훈)
- 圖 11. <대적사 오른쪽 계단 면석>(차정훈)
- 圖 12. <토끼와 거북이>, 조선후기, 남장사 극락보전 내부 창방(문화재청·(사)성보문화재연구원, 『한국의 사찰벽화-경상북도』 2, 2011, p. 370)

- 圖 13. <般若龍船幡>, 1896년, 비단, 104x87, 1폭, 양산 통도사 정보 박물관 소장(정보문화재연구원, 『韓國의 佛畫 2 通度寺 本寺篇(中)』, 1996, p. 185)
- 圖 14. <大寂寺 極樂殿 七星圖>, 1939년, 비단, 147.5x164.5, 1폭, 청도 대적사 극락전(문화재청·(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문화유산발굴조사단, 『한국의 사찰문화재-경상북도 I』2, 2007, p. 383)
- 圖 15. <大寂寺 極樂殿 石造佛坐像>, 1674년 추정, 돌, 상높이 72.3, 슬폭 49.3, 청도 대적사 극락전(차정훈)
- 圖 16. <大寂寺 極樂殿 石造菩薩坐像(右)>, 1674년 추정, 돌, 상높이 63.5 무릎폭 42.5, 청도 대적사 극락전(차정훈)
- 圖 17. <大寂寺 極樂殿 石造菩薩坐像(左)>, 1674년 추정, 돌, 상높이 61.5 무릎폭 42.5, 청도 대적사 극락전(차정훈)
- 圖 18. 淸虛, <居昌 尋牛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1640년, 나무, 상높이 108.3, 무릎 폭 71.3, 거창 심우사 대웅전(문화재청·(재)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찰문화재-경상남도 I』1, 2009, p. 255)
- 圖 19. 道祐, <松林寺 極樂殿 石造阿彌陀佛坐像(本尊)>, 1655년, 돌, 상 높이 125cm, 무릎 폭 95cm. 칠곡 송림사 배전(문화재청·(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문화유산발굴조사단, 『한국의 사찰문화재-경상북도 I』2, 2007, p. 510)
- 圖 20. 道祐, <松林寺 極樂殿 石造地藏菩薩坐像(右)>, 1655년, 돌, 상높이 103.5cm, 무릎 폭 78cm. 칠곡 송림사 배전(문화재청·(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문화유산발굴조사단, 『한국의 사찰문화재-경상북도 I』2, 2007, p. 510)
- 圖 21. 道祐, <松林寺 極樂殿 石造觀音菩薩坐像(左)>, 1655년, 돌, 상높이 101.5cm, 무릎 폭 75cm. 칠곡 송림사 배전(문화재청·(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문화유산발굴조사단, 『한국의 사찰문화재-경상북도 I』2, 2007, p. 510)

- 圖 22. 勝湖, <道誑寺 石造觀音菩薩坐像>, 1670년, 돌, 상 높이 70, 도선사 청담 유물관 소장((재)불교문화재연구소, 『삼각산 도선사』, 2015, pp. 63-65)
- 圖 23. 勝湖, <德寺 靈山殿 石造釋迦牟尼佛坐像>, 1678년, 돌, 상 높이 92.7 무릎 폭 59, 청도 덕사 영산전(차정훈)
- 圖 24. 勝湖, <德寺 靈山殿 提和竭羅菩薩坐像(右)>, 1678년, 돌, 상 높이 76.5 무릎 폭 50, 청도 덕사 영산전(차정훈)
- 圖 25. 勝湖, <德寺 靈山殿 彌勒菩薩坐像(左)>, 1678년, 돌, 상 높이 82.5 무릎 폭 50, 청도 덕사 영산전(차정훈)
- 圖 26. 勝湖, <德寺 冥府殿 石造地藏菩薩坐像>, 1678년, 돌, 상 높이 118, 무릎 폭 73.5, 청도 덕사 명부전(차정훈)
- 圖 27. 勝湖, <雲門寺 內院庵 石造阿彌陀佛坐像>, 1681년, 돌, 상 높이 87, 무릎 폭 58, 청도 운문사 내원암 극락보전(차정훈)
- 圖 28. 勝湖, <昌原 聖住寺 石造地藏十王像>, 1681년, 돌, 상 높이 113, 무릎 폭 83, 창원 성주사 지장전(문화재청·(재)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찰문화재-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Ⅱ』2, 2009, p. 444)
- 圖 29. 勝湖, <大悲寺 大雄殿 石造釋迦牟尼佛坐像>, 1683년, 돌, 상 높이 116, 무릎 폭 77.2. 청도 대비사 대웅전(차정훈)
- 圖 30. 勝湖, <長安寺 應眞殿 石造釋迦牟尼佛坐像>, 1684년, 돌, 상 높이 66.3cm, 무릎 폭 53.8cm, 부산 장안사 응진전(문화재청·(재)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찰문화재-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Ⅱ』1, 2009, p. 307)
- 圖 31. 勝湖, <長安寺 應眞殿 石造提花羯羅菩薩坐像(右)>, 1684년, 돌, 상 높이 59cm, 무릎 폭 46cm, 부산 장안사 응진전(문화재청·(재)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찰문화재-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Ⅱ』1, 2009, p. 307)

- 圖 32. 勝湖, <長安寺 應眞殿 石造彌勒菩薩坐像(左)>, 1684년, 돌, 상 높이 55.5 무릎폭 45, 부산 장안사 응진전(문화재청·(재)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찰문화재-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Ⅱ』1, 2009, p. 307)
- 圖 33. 勝湖, <機張 長安寺 冥府殿 石造地藏菩薩坐像>, 1684년, 돌, 상 높이 102.5cm 무릎 폭 78cm, 부산 장안사 명부전(문화재청·(재)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찰문화재-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Ⅱ』1, 2009, p. 331)
- 圖 34. 勝湖, <大典寺 普光殿 石造釋迦牟尼三尊佛坐像>, 1685년, 돌, 상 높이 104cm, 무릎 폭 78cm, 청송 대전사 보광전(문화재청·(재)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찰문화재-경상북도 Ⅱ』2, 2008, p. 427)
- 圖 35. 勝湖, <大典寺 普光殿 石造普賢菩薩坐像(右)>, 1685년, 돌, 상 높이 78.5cm 무릎 폭 56cm, 청송 대전사 보광전(문화재청·(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문화유산발굴조사단, 『한국의 사찰문화재-경상북도 I』2, 2008, p. 427)
- 圖 36. 勝湖, <大典寺 普光殿 石造文殊菩薩坐像(左)>, 1685년, 돌, 상 높이 76cm 무릎 폭 57cm, 청송 대전사 보광전(문화재청·(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문화유산발굴조사단, 『한국의 사찰문화재-경상북도 I』2, 2008, p. 427)
- 圖 37. 尙倫, <佛影寺 應眞殿 石造釋迦牟尼佛坐像>, 1677년, 상 높이 95 무릎폭 68.5, 울진 불영사 응진전(문화재청·(재)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찰문화재-경상북도 Ⅱ』2, 2008, p. 284)
- 圖 38. 尙倫, <佛影寺 應眞殿 石造提和竭羅菩薩坐像(右)>, 1677년, 상 높이 78.3 무릎폭 52, 울진 불영사 응진전(문화재청·(재)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찰문화재-경상북도 Ⅱ』2, 2008, p. 284)
- 圖 39. 尙倫, <佛影寺 應眞殿 石造彌勒菩薩坐像(左)> 1677년, 상 높이 78.5 무릎폭 54, 울진 불영사 응진전(문화재청·(재)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찰문화재-경상북도 Ⅱ』2, 2008, p. 284)

- 圖 40. 尙倫, <佛影寺 冥府殿 石造地藏菩薩坐像>, 1688년, 상높이 139
무릎폭 107, 울진 불영사 명부전(문화재청·(재)불교문화재연구
소, 『한국의 사찰문화재-경상북도 II』2, 2008, p. 290)
- 圖 41. 尙倫, <金谷寺 石造阿彌陀佛坐像>, 1678년, 돌, 상높이 98.2 무
릎폭 59, 1구, 칠곡 금곡사 극락전(문화재청·(재)대한불교조계
종유지재단 문화유산발굴조사단, 『한국의 사찰문화재-경상북
도 I』2, 2007, p. 497)
- 圖 42. 尙倫, <持寶寺 大雄殿 石造佛坐像>, 1686년, 상높이 83 무릎폭
58, 군위 지보사 대웅전(문화재청·(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문화유산발굴조사단, 『한국의 사찰문화재-경상북도 I』2,
2007, p. 322)
- 圖 43. 尙倫, <持寶寺 大雄殿 石造菩薩坐像>(右), 1686년, 상높이 69
무릎폭 50.5, 군위 지보사 대웅전(문화재청·(재)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문화유산발굴조사단, 『한국의 사찰문화재-경상북도
I』2, 2007, p. 322)
- 圖 44. 尙倫, <持寶寺 大雄殿 石造菩薩坐像>(左), 1686년, 상높이 66.5
무릎폭 50.5, 군위 지보사 대웅전(문화재청·(재)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문화유산발굴조사단, 『한국의 사찰문화재-경상북도
I』2, 2007, p. 322)
- 圖 45. <대적사 극락전 어칸 천장>(차정훈)
- 圖 46. <대적사 극락전 오른쪽 협칸 후면 천장>(차정훈)
- 圖 47. <대적사 극락전 단집>(차정훈)

〈부록〉

조선후기 3칸x2칸 건물 목록

번호	건물명	건립년도	소재지	종별
1	울진 불영사 응진전	1578년	경북 울진군 불영사길 48	보물 제730호
2	진주 청곡사 대웅전	1612년	경남 진주시 금산면 월아산로1440번길 138	경남 제51호
3	청원 안심사 비로전	1613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동길 169-28	충북 제112호
4	순천 정혜사 대웅전	1617년	전남 순천시 서면 정혜사길 32	보물 제804호
5	청원 안심사 대웅전	1626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동길 169-28	보물 제664호
6	익산 승림사 보광전	1628년	전북 익산시 웅포면 백제로 495-57	보물 제825호
7	통영 용화사 보광전	1628년	경남 통영시 봉수로 107-82	경남 제249호
8	순천 송광사 영산전	1639년	전남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안길 100	보물 제303호
9	강진 정수사 대웅전	1644년	전남 강진군 대구면 정수사길 403	전남 제101호
10	안동 광흥사 응진전	1647년	경북 안동시 광흥사길 105	경북 제455호
11	고창 문수사 대웅전	1653년	전북 고창군 고수면 칠성길 135	전북 제51호
12	전의 비암사 극락보전	1657년	세종 전의면 비암사길 137	세종 제1호

13	고성 옥천사 대웅전	1657년	경남 고성군 개천면 연화산1로 471-9	경남 제132호
14	예천 용문사 대장전	1670년	경북 예천군 용문면 용문사길 285-30	보물 제145호
15	청도 대적사 극락전	1675년	경북 청도군 화양읍 송금리 223번지	보물 제836호
16	포항 보경사 적광전	1677년	경북 포항시 북구 보경로 523	보물 제1868 호
17	포항 보경사 대웅전	1677년	경북 포항시 북구 보경로 523	경북 제461호
18	의성 대곡사 대웅전	1687년	경북 의성군 다인면 봉정리 894	보물 제1831 호
19	순천 동화사 대웅전	1696년	전남 순천시 별량면 동화사길 208	전남 제61호
20	청양 장곡사 하대웅전	16C말 ~ 17C초	충남 청양군 대치면 장곡길 241	보물 제181호
21	봉화 청량사 유리보전	1705년	경북 봉화군 명호면 청량산길 199-152	경북 제47호
22	안성 석남사 영산전	1725년	경기 안성시 금광면 베틀로 193-218	보물 제823호
23	진주 응석사 대웅전	1736년	경남 진주시 집현면 정평리 741	경남 제141호
24	포항 오어사 대웅전	1741년	경북 포항시 남구 오어로 1	경북 제452호
25	해남 미황사 응진당	1751년	전남 해남군 송지면 미황사길 164	보물 제1183 호
26	여주 신륵사 극락보전	1800년	경기 여주시 신륵사길 73	경기 제128호
27	경주 기림사 응진전	1863년	경북 경주시 양북면 기림로 437-17	경북 제214호

大寂寺重修記

余嘗聞釋氏緣業之說而未究其旨 今因體澄上人 益知其不誕而信矣 道之爲郡 僻處山水間 名寺巨刹 往往而有 南曰磧川 普照國師之所創也 東曰雲門 寶讓大師之所創也 北曰大寂 卽澄上人四世祖師 道號瑞月堂性海大師之所創也 粵在丙辰春 海大師 始就洞鶴山中 創立是寺 大雄殿 香爐殿 佛像三尊 東別構及泛鐘閣 皆同時所建 其事實 俱在板文 且師之宗派 皆住於此 及今八十餘載 大師之四世後 復得漢應師及澄師 則見法堂屋宇之腐曉者 曰是吾責 是吾事 闕逢闕茂之歲 與寺僧合謀改修 仍舊貫而益侈其觀 閱年而勦堊丹雘 隨以完畢 噫磧天雲門 俱以羅麗古刹 累百年來 盛而衰改而修者 不知其幾何 未聞照壤之後世 能繼述其事 獨大事 創之修之 前後發蹟 皆出於海師之門 若有使之而然者 豈非所謂有緣業者耶 奇哉 美哉 工已訖 澄上人 踵余門 求言以徵後 就其所持 歷敘其入功顛末 漢應以前和尚爲都監而董役 體澄以前書記爲化主而募緣 首座克修 極盡誠意而相其事 匠師灌頂 年纔二十七而殫其才 至如義浩師 勝擇 太幹 明淨師 竺淡師 智哲師 皆以寺中大德 發願而相助 故列緣楣扁以垂無窮 仍書曰郡北晚悔翁題

青猪孟夏之下澣 鄭龍夏書 李得春刻

施主秩 方漢南兩主 大禪師呂眞 大禪師清印 大禪師鵬印 大德雪心 前和尚義浩 前和尚快悅 前持殿管洽 前和尚明淨 前和尚智哲 時和尚竺淡 前判事勝元 良益 淨察 義和 德澄 灌頂 學映 朗玉 學俊 通政就簡 鄭慶雲 金百鍊 劉德海 劉太宗 朴文采 朴鳳甲 鄭彭才 朴萬才 金夏鼎 崔世貴 朴百只

成造 和尚智哲 持殿克修 侍奉朗玉 書記月鵬 直舍幸俊 首僧克閑 三寶錦和

緣化秩 都大木灌頂 片手得悅 最性 錦學 淨瑞 簡惠 鉅解崔世石 治匠金才 匠 都監漢應 別座竺談 供養主釋岑 世安 良信 霸掌良益 淨察

丹雘緣化秩 都監漢應 化主體澄 別座月輝 運卜宗坦 斗允 都畫員尙悟 瑞澄 達華 處日 道眼 崔允 玉尙 性贊 守雲 卓悟 性摠 致行 法聖 供養主宗坦 致玄

時任秩 和尚淡時 書記體澄 持事月輝 首僧宗坦 三寶宗卞 持殿祖白 侍奉玉心 有澄

本寺秩 老德勝擇 前和尚泰軒 前和尚義浩 前和尚快悅 前和尚明淨 前和尚
漢應 前和尚智哲 時和尚竺淡 善清 順白 順訥 位澄 敬印 會明 解
俊 體澄 得悅 法清 致還 體察 良益 幸俊 致悅 德澄 淨察 德珠 錦
和 雪云 儀和 學英 觀岑 觀眞 硯岑 法惠 學清 錦學 月輝 處明 秋
性 平坦 錦白 宗卞 宗淑 宗還 克閑 道安 宗坦 宗遠 得性 漢淑 道
心 致文 道湜 道岑 惠安 學俊 良學 萬初 良敏 典活 再訥 萬學 萬
玉 豐性 善祐 善稀 良信 良順 秋淡 就心 就尙 致玄 裕甘 斗英 斗
行 就閑 秋遠 善悟 灌揔 善弘 致信 灌淑 就性 斗寅 善元 善甘 善
初 善文 善贊 善敏 斗允 灌珠 善坦 彭男 道先 順三 太貴 達彬 仲
益

嶺左清道郡北□鶴山大寂寺普光殿上樑文

述夫 雄山自北乃 聿成慳秘之局 雌水向南去爰作開鍵之形 如雲客何來錫餅
造僧寮於崇禎白叟之夏 洗月堂性海長老 建佛殿於康熙青兔之春
然而 露往霜來 人□□□□ 風磨兩洗 丹亦消而青亦飛
持浩□□□□
成物力而邀工師 仍舊礎而立新柱
時乃 天上有澤之月 林下養犬之年
敢竭一筆之短才 謹頌六方之浩景
兒郎偉拋梁東 龍甬山容望不窮 兩後鳥啼千嶂裏 □□□落半空中
兒郎偉拋梁西 □岩□□又知圭 或昂□或分強弱 難主難賓處互低
兒郎偉拋梁南 一帶晴川靜且淡 沙煙□收人不□ 鴛鴦乘興睡方酣
兒郎偉拋梁北 斗垂夜柄□天德 □□□□□□□□ 面壁高僧聞不感
兒郎偉拋梁上 祥雲瑞靄圍千丈 時挖甘澍被農原 喜見家□登穰穰□
兒郎偉拋梁下 蓮花漏折分朝夜 奉□□□□□長 □化□天恩感謝
伏願上樑之後 黃面聖像爲萬代之依攸 白衲眞僧報四恩之深重
靈基長堅固見海桑之變形 名辭遠授傳值龍□之設法
皇明崇禎後紀元一百一十八□□□□□二十七日 □□□洛岩門人 有璣 撰

上梁錄

原夫此寺也 崇禎 庚申□□□□□無何□□□□□僧□□於康熙乙卯 有洗
月堂性海大師 特建普光佛殿 則遡□相去得五十六年 今□□□□□甲戌□□
□□□

孫漢應尸事同孫體澄設化 重創法殿 則自□至甲 又得八十年 則自始至今 合
凡一白有三十六年 意者 洗月既西之靈冥 冥助於不睹不聞之中耶 此後復有幾
人 隨替隨興耶 富俊洗月之暗贊耳 時之有切諸員 列書于左云

時和尚義浩

山中老德勝擇

山中老德前和尚泰軒

前和尚快悅

通政大夫前和尚明淨

緣化秩 前和尚兼都監漢應 別座竺談 都大木灌頂 得悅 副片手最性 錦學
侃惠 淨惠

供養主 □□ 惠眼 良信

化主 體澄 □坦

時書記 月□□□□□□

後事秩

禪堂 持殿克修 順白 韋澄 □印 會明 眞英 過長 淨察 □□ □□ 菅眞
法惠 學清 學俊

首僧 克閑 □訥 道安 宗還 萬學 □□ □□ □□ 秋遠 善初 善□

僧堂 善清 智哲 □□ □□ □□ 秋性 □□ □□ □□ 月輝 菅□ 過長
良益 宗卞 宗淑 典活 道□ 汙淑 道岑 秋淡 良□ 萬□ 豐性 善希
就□ 致□ 就心 □□ □□ 裕甘 善□ 善弘

上室 順訥 □清 □□ □□ 德澄 德周 澤岑 □□ □□ 處明 平坦 宗遠
得性 道心 □文 □文 朗玉 葉日 善祐 斗所 斗允 善淑 善敏 善□
千萬世

少者秩 奉三 命連 宗三 道先 貴必 尙占 彭男 □葉 □太 太守 達彬 太貴
順三 漢奉

청도 대적사 극락전 불교미술 연구

차 정 훈

慶州大學校 一般大學院

文化財學科

指導教授 임 영 애

(국문초록)

본고는 청도 대적사 극락전이 보물로써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하였다. 대적사는 17세기에 성해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체징을 중심으로 18세기에 중건했다. 이는 전각 뒤에 사용되고 있는 명문기와, 「대적사 중수기」, 「보광전상량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극락전 기단은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다. ‘H’형태로 전각 되어 있으며 연꽃, 거북이, 게 등 다양한 문양이 있다. 또한, 소맷돌에는 「용비어천도」라고 불리는 조각이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소맷돌에 새겨진 그림을 「용비어천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불교에서 큰 의미를 가지는 용, 거북, 연꽃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거북의 몸에서 연꽃이 나오는 장면은 『甘露軍荼利菩薩供養念誦成就儀軌』에서 보이는 내용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해양생물은 흔히 불을 막아주는 벽사의 의미로 해석한다. 하지만, 대적사 극락전은 ‘벽사’라는 의미를 넘어 전각이 ‘반야용선’임을 부각시켜준다. 이는 『金剛般若波羅蜜經』에 의거한 내용으로 『금강경』 이외에도 다수의 경전에서 전각을 배에 비유한다. 따라서, 기단에 조각된 해양생물은 물을 상징하며, 전각이 반야용선임을 강조하는 수단으로 생각한다.

기단에 해양생물이 있는 사찰은 여수 흥국사 대웅전, 해남 미황사 대웅전, 순천 정혜사 대웅전 등이 있다. 현재까지 이러한 사찰은 모두 기단을 물로 보고 있으며, 공교롭게도 대적사를 제외하고 모두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다. 그로인해 해양

생물은 해안가와 인접한 사찰에서 보이는 특징으로 분류한다. 하지만 대적사의 예를 통해 해안가와 상관없이 전각이 가진 의미를 강조하는 수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전각에 봉안된 불상은 17세기 청도에서 활약한 승호파 불상으로 추정된다. 「대적사증수기」에서 보이는 시기와 승호파 활동시기가 일치하며, 얼굴 형태, 재질, 가사 양식 등 상당부분이 승호파 불상과 유사하다. 따라서 대적사 극락전은 조선후기 건축양식을 가지고 있고, 장엄요소와 더불어 불상까지 시대성을 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찰이다.

A Study on the Buddhist Art of Cheong-do Daejeoksa Geukrackjeon

Cha Jung Hoon

Department of Cultural Assets

The Graduate School

Gyeongju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Yim, Young ae

(Abstract)

This study started from the question about what meaning Cheong-do Daejeoksa Geukrackjeon has as a treasure. Daejeoksa was first built by Great Master Seong-Hae in the 17th century, and was rebuilt by those led by Che-Jing in the 18th century. This fact can be confirmed through roof tile with well written words, 'Daejeoksa repairing record', and 'Bogwangjeon Sangryangmun' used behind a seal engraving.

The stylobate of Geukrackjeon has unique structure. Its line is made in 'H' shape, and there are various patterns such as lotus, turtle, and crab. In addition, it is famously known that in the lower part stone, there is a sculpture called 'Yongbieocheondo'.

However, it is hard to regard the photo engraved in the lower part stone as 'Yongbieocheondo', and it seems that dragon, turtle, and lotus which have significant meaning in Buddhism are expressed. In particular, the scene where lotus comes out of a turtle is seen as a description of the story of 『Gamnogundaribosalgongyangyeomsongseongchwiwigwe.』

Marine life is usually interpreted as the meaning of preventing fire.

However, Daejeoksa Geukrackjeon brings into relief the fact that the seal engraving is Prajna Dragon Boat by going a step further. This is based on 『Geumgangbanyabaramilgyeong』, and besides 『Geumganggyeong』 lots of scriptures compare seal engraving to boats. Therefore, marine life engraved in stylobates symbolizes water, and seal engraving is regarded as a tool to emphasize Prajna Dragon Boat.

The temples which have marine life in the stylobate include Yeosu Heungguksa Daeungjeon, Haenam Mihoasa Daeungjon, and Suncheon jeonghyesa daeungjeon. Until now, these temples regard the stylobate as water, coincidentally, except for Daejeoksa, all of them are located near beaches. Accordingly, marine life are classified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seen from beaches and the temples near beaches. However, considering the case of Daejeoksa, it makes sense to see it is the tool to emphasize the meaning of seal engraving regardless of beaches.

Lastly, statue of Buddha sealed in seal engraving is assumed to be the statute of Buddha of Seung-ho school which was active in Cheong-do in the 17th century. The period seen in 「Daeheoksa repairing record」 and the period when Seung-ho school was active coincide, and significant parts such as face shape, material, and lyrics forms are similar to Buddha statue of Seung-ho school.

Therefore Daejeoksa Geukrackjeon has the construction method of the late Joseon dynasty and it is an important temple as it represents the era through statutes of Buddha along with grandeur factor.

Key words : late Joseon dynasty, Cheong-do, Buddhism, Daejeoksa, Seung-ho school, Yongbieocheondo, Prajna Dragon Boat